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기다립니다

- × [이달의 인물] 대야고 2학년 김도혁, 삼현여고 2학년 한다경
- × [청소년뉴스] 인천 고교생 교내서 60대 교사 폭행 충격
위마트·일베 등 '청소년 절금 차단' 추진
'도전 골든벨' 모자이크 논란? 공영방송 원칙 따랐다?
- × [학교소식] 경상사대부고 '한화사이언스챌린지' 대상 수상
진주 대야고 2-9반 학생 이웃사랑 성금 기탁
경남과학고 한국수학경시대회 3년 연속 최우수학교 선정
지수중→반성중 지수분교 편입 추진 논란
진양고 드림캠프 '넌폼에 미쳐라' 개최
- × [맛강년맛반]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6반편
- × [맛강년맛반-신청] 명신고등학교 2학년 5반편
- × [10금 특특] 아동을 단체관람하다
- × [특집] MeToo, 페미니즘 그리고 그 혐오의 시대를 넘어
- × [넌네아슈] 인천 고등학생 교내 교사폭행 사건
- × [글로벌미팅] 인도유학생 답을 만나다
- × [우리 학교에만 있다] 경해여자고등학교 편
- ×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 이색 먹거리 시식회
- × [등아리탐방] 전주교등학교 사회과학동아리 S.N.S
- × [우리 학교에만 있다] 경해여고 편
- × [동네투어] 우리동네 가볼만 한 곳, 상대동편
- × [JOB을 잡아라] 컴퓨터프로그래머 김준환씨를 만나다
-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진양고등학교 1학년 임수민
- × [필통순] 익명세사람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을 찾아서
- × [FOUCOS 한 컷] 일상에서 만난 한 장면
- × [기고] 선생님에게 비판받을 권리를...
- × [취재수첩] 오작동으로 아무 때나 울리는 화재경보기
당신의 분리수거, 제 점수는요?
진주시 학교 등굣길은 안전 불감증
한웃기부로 봉사활동 점수까지 받자
빛쟁이 대학생... 대학이 정사하는 나락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8월호 문제

BASIC DESK

1200*600

COMPUTER DESK

1400*700

BASIC DESK

1600*800

SIDIZ 사무/학생가구 DESKER®

시디즈(의자) 진주스마트점 | 데스크(소파가구) 진주침암점 스마트오피스 포시즌주차장 옆
사무용/교육용/병원용/인테리어가구/정부조달물품공급업체 **055) 924-0050/0060**

2018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쿵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움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대아고 2학년 김도혁, 삼현여고 2학년 한다경

오늘도 나의 한계에 도전 한다 클라이밍은 언제나 나에게 에너지를 샘솟게 한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도혁: 저는 대아고등학교 2학년 김도혁입니다.

한다경: 저는 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 한다경입니다.

Q. 어떻게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김도혁: 저는 아버지가 클라이밍을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관련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클라이밍 암벽장을 자주 접할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클라이밍과 함께 된 것 같습니다.

한다경: 저도 부모님이 원래 클라이밍을 하셔서 취미삼아 따라가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국가대표가 되었다고요. 사실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던 그 순간부터 더욱 열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Q. 혹시 따로 체력관리도 하나요?

한다경: 보강운동으로는 하체나 복근, 전신운동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특히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 같네요.

김도혁: 마찬가지로 기구보다는 미세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바디웨이트를 중심으로 하고 기초체력은 달리기로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Q. 클라이밍을 할 때 손이 더 아픈가요, 다리가 더 아픈가요?

김도혁: 처음 시작할 때 '포켓홀드'라는 것을 잡고 입문하게 되는데 그걸 잡으면 손바닥이 아프고 다음으로는 조금 더 작은 '클림프홀드'라는 것을 잡는데 그걸 잡으면 손끝이 아파요. 어찌됐든 아프죠.^^

한다경: 실제 다리보다는 손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리는 연습하면 나를 편찮아진답니다. 근데 아픈 것이 꼭 고통만주는 것은 아니죠. 직접 체험해 보심 아실 거예요.^^

Q. 예체능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한다경: 학교를 마치고 운동하러 바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피로를 좀 더 느끼기는 하죠. 실제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엄살 피운다고 얘기하면 힘이 좀 빠지곤 해요.

김도혁: 그리고 저희는 보통 보충이나 야자를 빼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연습장으로 바로 가는 편입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연습량이 좀 부족한게 늘 걱정이 됩니다.

Q. '체고'로 진학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김도혁: 비인기종목이라 그런지 일단 체고에는 '산악'이라는 종목이 없습니다.

한다경: 인문계로 진학한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예체능을 한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Q. 경기 전 나만의 징크스가 있다면?

김도혁: 저는 제 몸에 뭐가 부착되어 있거나 뭐가 걸려있으면 좀 불안해요. 예를 들면 팔찌 같은 거? 항상 신경 쓰이더라고요.

한다경: 벨트를 맬 때 줄이 꼬이면 안 돼요. 무조건 꼭 매고 바르게! 일종의 직업병인가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한다경: 저는 올해 있었던 서울시장기 대회죠. '스피드' 종목으로만 출전을 했는데 그 대회에서 10초87로 제 신기록을 세웠어요. 보통 12초인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김도혁: 저는 저번 구미대회 때 '리드'라는 종목을 했는데 예선 때 성과는 2등으로 좋았어요. 근데



'루트파인딩'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과는 8명 중 6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시장기에서 10초로 제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ㅎㅎ

Q.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김도혁: 작년 겨울 때요. 너무 춥기도 했구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 만큼 실력은 늘지를 않으니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다경: 저도 작년 겨울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인생에 슬럼프는

오잖아요. 말 그대로 슬럼프는 이겨내라고 있는 거니까. 이겨야죠.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다경: 진주에도 리드벽이나 스피드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통 독자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도혁: 스포츠 클라이밍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진주 청소년수련관 실내암벽등반장에서 그들을 만났다



〈2018 서울시장기 대회 수상 모습 (한다경선수)〉



〈2017 중국 왕산산 아시안컵 경기 대회 모습(한다경선수)〉



〈실제 경기 모습(김도혁선수)〉



〈실제 경기 모습(김도혁선수)〉



한다경

"나에게 클라이밍이란 내 인생의 절반이다. 지난 18년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서도 언제나 그럴 것이고 그 절반이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당장 9월초에 앞둔 전국대회와 11월에 있을 세계대회 모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



김도혁

"클라이밍이란 나에게 삶이고 미래 자체다. 클라이밍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미래가 불확실했을 거다. 국가대표라는 삶을 택하고 그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클라이밍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에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달려볼 것이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며 딱 그만큼 땀 흘릴 것이다."

진주의 실내암벽등반장



빅 클라이밍 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14 (가좌동) 055-763-1316



HAG 에타클라이밍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15 (충무공동) 055-746-8848



진주스카이크라이밍
경남 진주시 신안들말길 49 (신안동) 055-746-7861



진주청소년수련관 실내암벽장
진주시 남강로 651번길 12 (본성동) 055-749-5453

스포츠 클라이밍의 종류

1)볼더링 : 안전벨트 착용없이 정상까지 짚고 내려오는 경기로 약 4~5개의 문제가 출제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많이 푸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 되는 경기입니다. 경기장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2)리드(난이도 경기) : 리드 경기는 난이도 경기라고 하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경기로 누가 가장 높이 오르느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경기입니다.
3)스피드 : 스피드 경주는 15M의 높이를 누가 단 시간에 가장 빨리 오르느냐 하는 일종의 달리기 같은 종목입니다. 15M면 아찔한 높이인데 거의 날아 오른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물론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취재/ 하수진(사대부고2), 양영진(대아고2)기자]

워마드·일베 등 청소년 접근 차단 추진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차별, 비하, 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기로 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방심위와 함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거 게시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차별, 비하, 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기로 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방심위와 함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거 게시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천 고교생 교내서 60대 교사 폭행 충격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내에서 60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구 A고등학교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오전 10시 25분께 이 학교 2학년 학생 B(17)군이 학생부실에서 교사 C(61)씨를 두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고 책상에 있던 도자기 연필꽂이를 교사에게 던졌다. 또 학교 복도에 설치된 유리 진열장 등도 파손했다.



장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오다 빈 교실에 있던 B군을 발견, 상담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해당 학교는 B군에게 긴급 등교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조만간 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B군을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B군은 이날 1교시가 끝나고 몸이 아프다며 양호실에 가서 쉴 것을 허락받았지만, 양호실 문이 잠겨 있었고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다른 반 교실에 머물렀다. C교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비가 내리자 운동

프랑스 학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프랑스 학생들은 9월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됐다.



들은 스마트 기기를 집에 두고 등교해야 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그는 사이버 왕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포르노 시청을 막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상황에서 일일이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7월30일(현지시간)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무선장치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최종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학교는 교육활동, 특별외부활동, 장애학생 지도 같은 예외 사례에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3세부터 15세까지 연령대 학생이다. 15세 이상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스마트폰 금지 여부를 학교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업 외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학생

연이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 형사 기준 13세 미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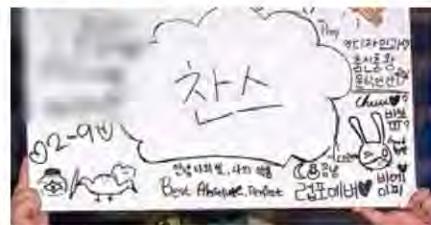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소년법' 폐지·개정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8월23일 청와대 SNS를 통해 "10~13세 범치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

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2.2%에서 4.4%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체 비율은 같은 기간 1.1%에서 1.6%로 증가했다.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

도전 골든벨 모자이크 논란? 공영방송 원칙 따랐다?

KBS2 '도전 골든벨' 측이 모자이크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8월7일 '도전 골든벨' 측은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며 "하지만 공영방송은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슈의 경우,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청소년 출연자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휘말려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항상 녹화 전에 출연자들에게 '프로그램 취지를 벗어나는 멘트는 자제하라'고 사전 고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이 작성한 글, 사진, 개인정보 등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해당 학생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또한 건강한 토론의 영역에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

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방송된 908회 '도전 골든벨'에서는 안양 근명여자정보고 편이 전파를 뒀다. 이 중 한 학생의 정답판에 적힌 문구가 모자이크 처리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학생은 SNS를 통해 "'도전 골든벨'에 나가서 동일 범죄, 동일 처벌 '과' '낙태죄 폐지'를 써줬는데 그걸 다 가려버렸다. KBS 편집팀인지, 위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잘 알았고, 나는 그게 정치적 발언인 줄은 몰랐다"고 KBS 측을 비판했다.

모든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의무화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8월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국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사서 등 전문인력을 의무배치하도록 했다. 2007년 법 제정으로 학교마다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독서지도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한 학교는 드물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율은 37.6%에 불과하다. 개정법은 사서의 정원과 배치기준,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서교사의 총정원 산정 시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최소 기준만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등에서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인 학교가 사서교사 의무 배치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9월부터 모든 학교 자판기·매점서 커피음료 퇴출

9월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8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다.

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법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 미성년 연령 기준이 13세로 조정될 경우, 중학생들도 범죄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 갈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영국은 10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

고 있다. 독일·일본·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이다.



지수중→반성중 지수분교 편입 추진 논란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이 지수면 지수중을 반성중 지수분교로 편입을 추진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진주교육청은 내년 3월 지수중을 반성중 분교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행정예고 했다고 8월8일 밝혔다. 이어 지수중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위원회'에서 편입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지수초등학교장, 지수중학교장, 지수면장, 장학사, 진주교육청 교육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당초 진주교육청은 지수중 통폐합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69% 나왔다. 결국 통폐합 논의는 중단됐다. 하지만 진주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의 하나로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거나 학생 수가 20명 이하이면 추진 가능한 '분교장 개편' 카드를 꺼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지수중의 학생 수와 교직원 수는 13명씩으로 같다. 이에 학부모와 지수중 동창회는 대책위를 구성해 지수중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 추진위에 학부모가 제외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대책위는 "작은 학교 만들기와 관련해 협의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반성중 분교 카드를 꺼내 뒤통수를 치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진주교육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연내 제정 불투명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빠른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게 중요해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8월21일 밝혔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만드는 과정도 가져야 해 연내 제정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와 형식도 검토하면서 일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16일 경남미래교육연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권 실태



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좋은 미래 교육은 현존하는 학칙과 관련법을 보완해 창조적으로 운용하면 충분한 만큼 조례 제정을 백지화하고 창조적 미래 교육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 지방선거 재선 직후 학생인권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중앙중 독서디베이트, 토론의 즐거움을 맛보다

진주중앙중학교는 2018.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와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 독서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8월6일부터 여름방학 동안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하나로 '독서 디베이트, 토론의 즐거움을 맛보다!'를 실시하였다. 디베이트는 주제에 대해 찬반 팀을 나누어 형식에 따라 주장을 펼치고, 반박과 교차질의를 통해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디베이트 전문코치 최연희 강사를 초빙하여 '변신', '동물농장',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읽고,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 독서디베이트로 진행하였다.



학교와 도서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에 임하는 학생들의 열기는 폭염을 녹여내는 알찬 시간이었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하였다.

도교육청 학교 분필칠판 완전 교체한다

경남도교육청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분필칠판 교체를 희망하는 도내 학교에 분필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물백묵칠판, 화이트보드 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소규모 시설비 성격인 분필칠판 교체 사업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집행해 왔으며, 2016년 예산안에 교체를 희망하는 482개교에 31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거의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분필칠판의 필기감과 편의성 등으로 교체를 희

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학생·교사들의 호흡기 건강 및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9개교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진주 폭염 속 힙합콘서트 많은 청소년 몰려...

최근 진주에서 열린 한 힙합 콘서트에서 청소년들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행사 주최측에서는 학생들이 쓰러지는 등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허술한 사고 대처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게 일었다. 8월12일 오후 5시 진주시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힙합 콘서트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래퍼 등 10여명이 출연했다. 문제는 콘서트 입장 과정에서 관람객들이 폭염 속 길게는 1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생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됐다 3시간 일정의 공연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탈수증상 등을 호소했으며 쓰러지는 학생들도 속출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공연은 기존 4시부터 입장 예정이었다가 행사 주최측에서는 입장 시간을 30분 앞당겼으며, 1000여명의 관람객은 입장 전까지 길게는 1시간 30분까지 줄을 서야만 했다.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따르면 1시간 이상을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공연을 관람했는데 어지러움을 느끼



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쓰러지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응급부스에는 탈수 증상 등으로 8명의 학생들이 응급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의 학생들은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실제 공연장 내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탈수 현상으로 구토와 어지러움 등으로 제자리에 주저 앉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티켓 가격이 5만원이나 되는데 폭염 속에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면 생수를 나눠 준단던지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도내 학교폭력 여전 가해자 절반, 같은 반

도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으며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절반을 차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8월 27일 지난 5월에 실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재학생(전체 28만9757명) 중 28만1591명(97.2%)의 학생들이 온라인 조사를 통해 참여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5.1%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6.3%), 스토킹(11.4%), 신체폭행(10.4%), 사이버 괴롭힘(10.4%), 금품갈취(6.8%), 강제추행 및 성폭력(5.4%), 강제 심부름(4.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장소로는 교실 안(31.1%), 복도(14.2%), 급식소 및 매점 등(10.5%), 운동장(8.2%)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시간은

쉬는 시간(36.0%), 점심시간(17.6%), 하교이후(12.8%), 수업시간(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 후 그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81.3%로 그 대상은 가족(43.6%), 학교(21.0%), 친구나 선배(11.3%), 다른 사람이나 기관(3.5%), 117신고센터(1.9%)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우리 학교의 같은 반 학생(48.2%), 우리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30.3%), 우리 학교의 다른 학년 학생(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주여중, 산청 대원사 템플스테이

진주여자중학교는 지난 7월 3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청 대원사에서 '깊은 숨, 깊은 씬'이란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발우공양체험, 소리 명상, 나만의 명함 만들기, 부채만들기, 소원을 적은 연꽃 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쳤다.



진주소방서 청소년 119안전뉴스경진대회 UCC공모

진주소방서는 오는 9월 21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2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UCC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진주시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0명 이하의 팀을 구성해 안전에 관한 소재로 5분 이내 UCC형식 영상물을 제작하여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주제는 화재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물놀이 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소재면 가능하고 기존 TV뉴스 형

식을 벗어나 창의적인 형식으로 주제를 표현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10월 중 경남 도내 UCC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팀은 경남을 대표해 오는 11월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되는 전국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전국 대회에서는 UCC영상을 7분 이내로 무대에서 직접 재연하며 참가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등 총 18점의 상장과 76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참가 접수, 대회 관련 문의는 예방안전과(760-9243)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사대부고 한화사이언스챌린지 대상 수상

국립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 박준·김성민 학생(지도교사 노학기)은 지난 8월21~23일 3일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화인재경영원에서 진행된 '미래 노벨상을 향한 과학영재들의 최고 경연장'인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18' 본선 대회에서 대상(1위)을 수상했다.



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열음 스위치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상금으로 40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스위스·독일 등 우수 해외대학 및 기관에 대한 해외탐방 특전도 주어진다. 나아가 한화그룹 입사 및 인턴십 지원 서류 전형 면제의 혜택도 받게 된다.

학생들은 물의 부피 팽창을 이용, '대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스위치에 대한 연구 및 활용 방안'을 고안해 겨울철 동파사고 및 빙판사고의 효율적인 예방책을 제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겨울철 동파나 빙판길을 예방하기 위한 열선인 '스노우 멜팅 케이블'이 있으나 외진 곳에서는 설치·관리가 어렵고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엄청난 자원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 점을 해결하고자 사람의 관리가 필요 없는 스위치를 고민, 물의 부피 팽창이라는 기본적인 과학 상

진주 대아고 2-9반 학생 이웃사랑 성금 기탁

진주 대아고등학교 2-9반(학생대표 김범준) 학생 30명이 이현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만 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들은 "선배들이 이웃돕기 했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급우들과 상의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우리의 정성이 좋은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공부만 하기도 벅찰텐데 주변을 돌아보는 학생들의 마음이 정말 기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웃돕기 성금은 좋은세상복지재단을 통해 이현동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편 이웃돕기 성금은 좋은세상복지재단을 통해 이현동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자동차고 군(軍) 특성화고 지원 사업 선정

경남자동차고등학교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군(軍)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공모해 지난 7월13일 경남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軍) 특성화고 지원 사업은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학·군 기술인력 육성 협력체계 구축과 입대 전에 군에서 소요되는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국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군 특성화고는 고교 3학년 재학 중에 군의 첨단 기술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한다. 전문병(21개월), 전문기술하사(15개월)로 3년간 복무한 후 전문기술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하거나 전역하면 군무원이나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경남자동차고는 차량정비 분야에 지원했으며, 관련



학과는 자동차와 1개 학급이다. 지원 사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방문 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 졌는데 환경 및 시설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차량정비 분야는 전국에서 4개 학교만 선정됐다.

진주고, 유럽문화체험활동

진주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유럽문화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주고는 지난 2002년부터 김상수장학회(51회 졸업)의 도움으로 매년 학생들을 선발해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4개국을 여행하는 유럽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체험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배낭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해여고 기자단 경남일보서 NIE 교실

경남일보가 진주 경해여자고등학교 학생기자단을 대상으로 2018 NIE(신문활용교육)교실을 가졌다. 경상남도지역 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사 취

재요령, 글쓰기, 신문 분석 등 총 5회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첫번째 수업은 지난 8월20일 오후 경남일보 강진성 기자가 1~2년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사 직업소개와 취재요령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진주동명고 진주향교 2018년 2기 인성교육

진주향교 충효교육원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 30분 진주동명고등학교 2학년 희망자 48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2기 인성교육 개학식과 1주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교육으로 진주동명고 학생들을 인성에질 및 전통교육을 통해 올바른 품성을 갖춘 교양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1 2학기 기별 7주, 주차별로 1-2시간씩 실시한다. 심동섭 성균관 부관장을 비롯한 진주향교 전문

경남과학고 한국수학경시대회 3년 연속 최우수학교 선정

경남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수학경시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경남과학고는 올해 한국수학경시대회에서 은상 1명(1학년 김준모), 동상 2명(1학년 신동원, 유승엽), 장려상 3명(1학년 권순현, 김상범, 김준수) 총 6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도교사상으로는 정연기 지도교사가 수상해 올해에도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올해로 36회째 실시되고 있는 한국 수학경시대회는 한국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경시대회로서 지역예선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 오류를 수정하고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수업을 진행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 심화된 다양한 풀이를 해석해 발표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생각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이를 발표해봄으로써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응용력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과학고는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경남과학고만의 특별한 지도 방법에 있다고 밝혔다. 주어진 하나의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여러 질문을 하면

진양고 드림캠프 네 꿈에 미쳐라 개최

진양고등학교에서는 지난 8월6~8일 2박3일 동안 드림캠프 '네 꿈에 미쳐라'가 열렸다. 드림캠프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서울대 학생 멘토들이 방학 중 직접 고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과 심도 있는 꿈찾기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버킷리스트를 알아보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대학생들이 소개하는 직업박람회를 통해 평소에 자신이 희망하거나 궁금해 하던 직업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대학생 언니, 누나, 형, 오빠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림캠프를 마치고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진양고 멘티 학생들은 좋은 경험이었고 자신도 대학생이 되어서 멘토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모의 면접 시간을 가져 입시 때 면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진주 경진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눈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 경진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진고는 지난 2016년 학교 비전을 '인성교육 중점 취업 명문 직업계고'로 설정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경진고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큰 틀은 ACE(Attractive Character Employee : 매력적인 인성을 갖춘 직업인) 인증 시스템이다.



ACE 인증서는 학생들이 취업 시 기업에 제 공하게 되는 학교장의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출·결석, 취업포트폴리오, 인성교육 방과 후 이수 등 8개 항목에서 좋은 결과를 얻

어야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진고는 칭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교사들로부터 칭찬을 일정 횟수 이상 받은 학생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학교장 표창을 수여해 학생들의 선행 유도과 배려심 배양에 힘쓰고 있고 있다.

강사 7명이 진행하며, 주제는 '향교의 역할과 목적, 유교경전 강독, 우리지역의 유학자 남명 조식, 다도예절, 관혼상제, 관례 및 수료식' 등이다.

진주제일여고 이공계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진주제일여고는 지난 8월22일(수) 오후 3시30분부터 이공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교내 청암관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1학년 전체 및 2학년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었으며 강사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위촉한 과학커뮤니케이터인 이세리씨가 '안녕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해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MeToo, 페미니즘 그리고 그 혐오의 시대를 넘어

극단적 혐오, 그 본질에 다가가야 한다

분명 워마드의 극단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페미니즘이 남성혐오, 여성혐오로만 부각되는 한국의 현실은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이 사태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본질인지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워마드의 행태와 전략에 동의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최근의 논쟁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남성 중심적 사회인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해 주고 있다. 마치 인종주의자들이 이주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하게 여성에게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억압적 모습이 이제야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어쩌면 메갈리아와 워마드 같은 집단의 긍정적 기능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재 일부 남성들의 찌질한 대응들에는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있다. 한국의 남성들은 진보와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는 성산업과 성매매에 대해 관대할 뿐 아니라 심지어 다양한 수준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정당화하는 이들이 많다. 정치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을 보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성들 중 가장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에 대해서조차 남성성욕중심적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소위 '일반' 여성들의 상황이나 권리, 주장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는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말 하나하나에 흥분하고 분노하는 등으로 엉뚱한 힘을 낭비하지 말고, 실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불평등과 혐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여성 문제들의 핵심에는 바로 성매매 산업을 둘러싼 추악한 권력과 자본과 폭력집단, 그리고 압도적 다수 남성들의



침묵을 포함하는 공동의 범죄 행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억압 뿐 아니라, 성을 쉽게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별도의 현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다. 폭행이나 살인 뿐 아니라 성산업으로의 유입 등 다양한 총체적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의 작은 반란에 남성들도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분노의 화살은 소수자나 약자가 아닌 여성들을 포함한 사회의 약자들을 착취하는 집단들에게로 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페미니즘에 대하여...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 노력에 깃들었는지 안다면 그럴 수 없다.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란 용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분노 표출 수단으로 혹은 단순한 흥미로 인해서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터다. '평등'을 기반으로 한 이 숭고한 용어가 신기하게도 이를 지키고자 한다는 사람들에게 훼손되고 있는 요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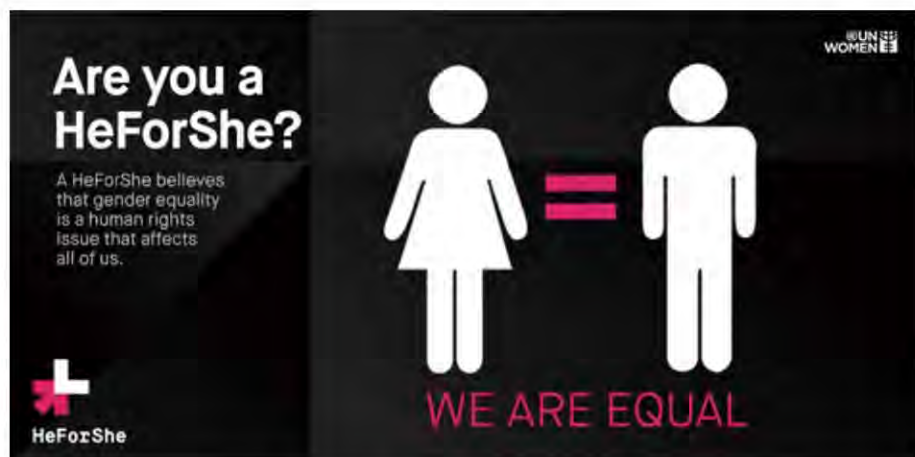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또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존재하는 것',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바다. 여기에 한 쪽 성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는 없다. 단지 남성이 우위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여성 또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은 박탈한 세계의 낡은 틀에 대항할 뿐, 이 쉽고 단순한 것이 여태 잘 되지 않아 여전히 투쟁하고 있을 뿐, 남성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우위를 쟁취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늘날, 일명 '페미니즘'이란 걸보기 좋은 주제로 가장한, 일부 남성과 여성의 과열한 경쟁은,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면서 퀘스트 이상한 구석에서 폭발하여 도리어 성평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일베'에 이은 '워마드'의 등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에도

끼워내지 못하는, 결국 똑같은 부류를 양산하는 정도의 대응이라서, 의식 있는 이들과 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까.

게다가 이 파급력 좋은 이슈에 몸을 실으며, 고의든 고의가 아닌든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례로 한서희가 있다. 워마드(womad,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남성혐오사이트)의 대표가 결국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여성혐오사이트인 일베도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각에서 편파수사를 주장했다. 이에 처음엔 대마초로, 이제는 워마드를 지지하는 일인으로 인지도를 쌓고 있는 한서희가 차라리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물론, 그녀를 대신 잡아갈 리는 없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그녀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흥미로운 점은 워마드에서도 한서희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 환영하는 쪽보다 화제성 때문에 자신들을 언급한다 여기며 섞이고 싶어 하지 않는 쪽이 더 많다. 이 우스꽝스러운 현상은, 현재 우리



가 처한 성대결의 양상, 본질은 잃은 채 자극적인 가십거리와 저급한 성적 우월의식으로만 남은, 우리의 페미니즘, 성 평등운동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캐나다 드라마 '빨간 머리 앤' 시즌2에 스테이시라는 한 여선생이 등장한다. 아직은 여성도 흑인도 편견에 의해 불편한 시기, 코르셋을 착용하기보다 바지를 입고 진보적인 교육법을 선보이는 스테이시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동시에 갖가지 소문을 야기한다. 결국 실제 없는 소문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해임당할 위기에 놓이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진실

함으로, 그러한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과 함께, 한 진보적 여성을 바라보는 시대의 편견과 불편함에 당당히 맞서고 넘어선다.

우리에게 주어진 페미니즘이란 이런 것이고 페미니스트란 이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무게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진 않아도 평등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 재미로 혹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쉽게 입에 올릴만한 용어가 아님을 알아야 할 터다. 만약 입에 올리고 싶다면 자신이 그러한 사고를 추종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의식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투가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 지나야 할 시간!

me too 운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여기저기서 못물처럼 '미투'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인한 우려와 혼란을 걱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투 당사자들이 2차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가 하면 왜곡된 정보들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반대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미투' 운동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에선 미투 운동을 남성대 여성의 갈등으로 몰아 그 본질을 흐리기도 한다.

그러나 미투운동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성차별 남성중심의 사회였고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남성이 독점하다시피 했기에 성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일 수밖에 없을 뿐이다. 남성도 얼마든지 피해자일 수 있다.

남성중심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약자인 피해자 여성이 '미투'를 외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투' 이전 만큼이나 이후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고통도 가능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고 항상 그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다.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투' 운동이 중단되거나 그 본질이 흐트러질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미투운동은 역사적인 흐름이다. 큰 물이지면 작은 소용돌이도 있고 예기치 않은 피해도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있어서는 안 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고 '미투'는 단순한 개인의 범

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한 시대를 넘고 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돈과 지위 그리고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 시대,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존엄 따윈 무시해도 되는 시대, 우리는 이제 사 그런 시대의 마지막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가정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행해졌던 기득권과 폭력,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했다. 학교에선 교사라는 이유, 힘이 세다는 이유, 공부 잘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이 무시됨을 당연히 했다. 직장에 가면 회사의 사주와 상사들이 그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함에 있어 감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이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들이 동등한 사람임을 잊는다. 더구나 여성이라면 더 그래야 되는 존재였다.

미투는 단순히 성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나도 당했다' 그 '나'는 결국 우리

모두 일수 있기 때문이다. 나 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든 사람이 '나'가 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With you'를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니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이 힘과 돈, 권력으로 훼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스스로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시대가 그냥 던져질 리도 없다. 'with you'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용기 있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함께 피해자를 보호해주며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미투가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 지나쳐야 할 힘겨운 시간을 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 이색 먹거리 시식회

이색 편의점 먹거리, 그 맛을 알려주마



폭염! 폭염에 허덕이던 무더운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그 덕일까? 우리 이번 여름 동안 수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 먹는 제품중 하나는 언제나 아이스크림이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와도 그 인기는 변함이 없을 듯하다. 그 높은 인기 탓일까? 요즘 편의점에 아주 특이한 먹거리들이 등장했다. 어려운 말로 스핀오프 바람이라고 한다. 아이스크림의 인기를 등에 업고 같은 이름의 전혀 다른 먹거리로 탄생한 놈들



이 있다. 필통기자들이 독자여러분을 대신에 제대로 시식해 볼테이니 집중해 주기 바란다.

메로나 오리지널 주스?

우리에게 엄청 친근한 아이스크림 메로나가 마시는 주스로 변신했다. 메로나 녹여서 먹으면 맛있었는데 과연 실제로 나온 메로나 주스의 맛은 어떨까.

시식단 [맛 평가]

A: 진짜 엄청 맛 없다. 이걸 왜 돈 주고 사먹지? 메

로나 녹인 거에

설탕만 엄청 넣

은 것 같다. 너무

달다.

B: 처음에 인공

적인 단맛.. 맘에 들진 않았다. 그래도 메로

나 향은 난다.

C: 기존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녹인 것의 2

배(?)의 맛. 엄청 진한 우유에 메로나 섞어

먹는 것 같다.

#기존 아이스크림의 맛과 비슷한가?

★★★★☆



메로나 딸기 주스

시식단 [맛 평가]

A: 우웬.. 딸기우유에다가 알약 넣은 맛.

B: 향은 딸기우유인데 맛은.....

C: 웬지 고무장갑을 녹이면 이런 맛이 아

닐까?

#기존 아이스크림의 맛과 비슷한가?

★★★★☆



요맘때 복숭아 젤리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아이스크림 요맘때 젤리의 맛은 어떨까?

시식단 [맛 평가]

A: 엄청 연한 복숭아에 설탕으로만 간 들

인 것 같다.

B: 그냥.... 복숭아 맛 젤리.... 그게 끝...

C: 요맘때의 상표만 붙은 복숭아 맛 곤약

젤리 같다.

#기존 아이스크림의 맛과 비슷한가?

★★★★☆



요맘때 딸기 젤리

시식단 [맛 평가]

A: 딸기 냄새인줄 알았는데... 웬지 이상한

냄새와 맛이 난다.

B: 그냥..... 딱 딸기 맛 젤리... 특별한 게

없다.

C: 냄새가 거부감이 들고 맛은 진짜 없다.. 하~

#기존 아이스크림의 맛과 비슷한가?

★★★★☆



수박바 젤리

앞선 아이스크림 두 개는 냉정히 말해 실패다.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수박바의 맛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시식단 [맛 평가]

A: 수박바는 무슨. 그냥 젤리 모양의 설탕

덩어리다. 아오...

B: 향은 수박바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인공

적인 향이 강하다.

C: 약간 느끼한 냄새에 씹으면 뇌가 이상

하게 느껴진다.

#기존 아이스크림의 맛과 비슷한가?

★★★★☆



수박바 곤약 젤리

시식단 [맛 평가]

A: 수박 맛 나는 소독차의 냄새가 맛으로

전이 되는 공감각적 전환이 되었다. 나도

내가 무슨 소리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걸

먹으니 이렇게 된 거 같다.

B: 수박바 향은 확실히 나는데 맛이 진짜 없다.

C: 거부감 드는 군것질 거리는 이게 처음이다.

#기존 아이스크림의 맛과 비슷한가?

★★★★☆



스크류바 젤리

역시나 실패다. 믿을 건 스크류바 밖에 없다. 이상하게 꼬여가는 느낌적인 느낌!

시식단 [맛 평가]

A: 식감 진짜 별로다 짜증난다. 안에 찜은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암튼 엄청 별로다.

B: 이걸 분명 젤리인데 식감이 과자 같이

딱딱해서 싫다.... 맛과 향은 되게 비슷하다.

C: 안에 들어 있는 잼이 인생을 다시 되돌

아 보게 한다...

#기존 아이스크림의 맛과 비슷한가?

★★★★☆



돼지바 핫도그

다 실패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다. 아이스크림 중 젤 유명한 돼지바~ 과연 돼지바맛을 느낄 수 있을까?

시식단 [맛 평가]

A: 딸기 냄새인줄 알았는데... 웬지 이상한

냄새와 맛이 난다.

B: 진짜.....이건...진짜로 잘못된 조합이다..

C: 딱 한 입 먹기엔 먹을 만한 핫도그인

데.. 그게 전부인 것 같다.

#기존 아이스크림의 맛과 비슷한가?

★★★★☆



시식단 총평

결과가 참담하다. 뭐든 1절만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아직 못 먹어본 학생들 있다면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으로만 맛보자. 다른 음식들은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의 변신은 진짜 유죄다.

캔디가 라떼로, 아이스크림이 껌으로... 식품업계 스핀오프 바람!

장수브랜드 친근한 이미지+역발상 신선함이 마케팅 포인트로

'말랑카우 라떼, 왓따 수박바, 돼지바 찹떡...'

낮익은 장수 과자,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면서도 영역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신선함과 재미를 쥐 최근 자주 활용되고 있다.

롯데푸드는 인기 캔디인 말랑카우를 활용한 '말랑카우 라떼'를 출시했다. 말랑카우는 2013년 출시돼 매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인기 제품이다. 2015년 아이스크림 형태로 말랑카우바가 출시된 후 음료로 영역을 넓혔다.

지난 4월에는 가나초콜릿을 드링크 형태로 내놓은 '가나초콜릿밀크'를 출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가나초콜릿밀크는 출시 5개월만에 150만개 이상 판매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가나초콜릿은 1975년 출시돼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어선 국내 최장수 초콜릿 브랜드다.

롯데제과는 또 인기 아이스크림 제품인 수박바와 조스바를 풍선껌으로 만든 '왓따 수박바' '왓따 조스바' 등도 출시했다. 수박바, 꼬깔콘, 스쿠류바, 조스바 등은 젤리형태로도 출시된 바 있다. 돼지바는 돼지껌에 이어 돼지바 핫도그 형태, 돼지바 찹떡 등 다양한 방식의 스핀오프 시

리즈로 선을 보이고 있다. 해태제과도 올 초 인기 콘아이스크림인 부라보콘을 바 형태 부라보바로 출시한데 이어 최근 바 아이스크림 형태의 '탱크보이' 등을 내놨다.

스핀오프 뿐 아니라 오래도록 인기를 끈 브랜드 이미지를 역발상으로 활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롯데제과의 '가꾸로 수박바'가 대표적이다. 해태제과도 최근 누가바의 겉과 속을 바꾼 '누드 누가바'와 막대기가 하나뿐인 '혼자먹는 쌍쌍바'를 내놨고 오리온은 고래밥에 대응하는 '상어밥'을 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수 브랜드의 신제품은 소비자들이 친근하게 느끼면서도 참신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식품업계에서는 이같은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거꾸로수박바나 돼지바 핫도그 같은 제품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수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공고하고 새로운 제품이 크게 성공하기 어려운 제과, 아이스크림 분야에서는 장수 제품을 다른 버전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더욱 효율적이다. 스낵 제품 시장에서 1~3위를 차지하는 꼬깔콘, 포카칩, 새우깡 등은 모두 1980년대 출시된 제품들이다 아이스크림 인기제품도 메로나, 월드콘, 스쿠류바 등으로 모두 출시 20년이 지난 제품들이다.



[취재/ 김정빈(진주고1), 육선민(진양고1)기자]

[19금 토크] 청소년들의 솔직, 대담한 19금 토크

함께 야동 한 편을 감상하고? 성교육 전문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공식적으로 함께 본 야동,
그리고 성교육전문가와 야동 구석구석을 살펴다.

19금, 나이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것을 제약 받는다. 누구나 공감하고 청소년 스스로도 인정하는 금지가 대부분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왜? 라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금지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19금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야동이다. 야구동영상이 아니라 바로 19금 야동 동영상 그 '야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접근해 보려 한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야동관람은 쉽고도 쉽고 막는다고 막을 수도 없는 19금 아닌 19금인지도 모른다.

필통에서는 직접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야동 한 편을 골라 직접 함께 보기로 했다. 남,여 필통기자가 각각 2명의 친구들을 섭외했고 엄선한 야동 한편을 봤다. 남녀 학생들이 함께 보기는 쑥스러워 남학생과 여학생은 따로 약속을 해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보고 느낀점과 궁금한 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들고 성교육전문가 한 분을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물어보기로 했다. 진주여성회에 근무하시는 전옥희 사무국장이시다. 물론 같은 야동 한 편을 그 분께 미리 전달해 드렸다.



<필통기자가 최신야동(일본) 한 편을 고르고 성교육 전문상담사에게 보내 드렸다>

야동과 실제 맺는 성관계가 다를 것 같은 점?

[여학생들의 궁금증?]

우궁금 : 실제로도 애무과정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나요?
- 가능하죠. 각자 성감대가 달라서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아도 애무과정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우궁금 : 실제로도 야동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가 오랜 시간 동안 피스톤 운동이 가능한가요?
- 물론 가능한 남자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 보통 남성은 체위를 바꾼다는 가정하에서도 5~10분 정도 피스톤 운동이 평균적이라고 봐야 된답니다.

우궁금 : 야동과 달리 현실에선 여러명이 성관계를 하지 않잖아요.

- 실제로도 그럴 수는 있죠. 남자가 한 명 더 많은 그 반대이든 적은 한 명의 체력이 좋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하지만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럴 일리 많지는 않겠죠.

우궁금 : 신음소리의 강도가 야동처럼 실제로도 그럴 수 있나요?

- 사람마다 다르지만 진짜 좋아서 소위 오르가즘을 느낀다면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분과 신음소리의 강도는 꼭 비례하지는 않아요.

우궁금 : 실제 성행위 때 야동처럼 다양한 체위를 하게 되나요?

를 하게 되나요?

- 못할 것은 없죠. 능력과 배려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야동의 유일한 장점은 다양한 체위를 보여준다는 점이지요.(^^)

우궁금 : 야동은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가슴사이지가 비정상적이잖아요

-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포르노의 경우 일부러 사이즈가 큰 사람을 섭외하기도 하죠. 또 카메라 각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일 수도 있답니다.



[남학생들의 궁금증?]

♂궁금 : 관계를 하는 도중 야동에서처럼 부끄러운 말을 하나요?

- 섹스는 혼자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좋다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죠. 실제에서 그런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은 쉽진 않죠. 서로를 좋게 자극하는 말은 좋은거죠.

♂궁금 : 현실에서도 야동처럼 여성의 질이 아닌 항문에 삽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한 하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삽입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되겠죠. 항문은 질과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찢어질 확률도 높고 주의해야 할 점이 많죠.

♂궁금 : 야동은 너무 오버하고 보여주기식 같은데 실제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남자는 보통 관계 도중 청각이 예민해지죠. 그것을 알고 일부러 오버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 : 아무 말 없이 실제에서도 체위를 쉽게 바꾸면서 가능한가요?

- 사실상 서로 말이 없으면 체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경우라면 둘만의 패턴에 따라 또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진주 여성회 사무국장 전옥희님>



야동에서 표현되는 것들 중 아주 잘못된 것들

- 애무과정도 없이 삽입하는 것
- 정서적 교감이 없는 것
- 강압적인 상황이지만 여자는 기분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 상식

- 음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단,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무모증이 있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
- 처녀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이 아니라 표피조직이다. 그 표피조직이 떨어지면 피가 나오지만 그 조직이 적으면 피가 안 나올 수 있다.
- 성관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음부색이 어두운색이 되지 않는다.
- 여자의 생리기간에도 기간 중에 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은 가능하다.
- 콘돔을 두 겹으로 끼면 마찰력 때문에 오히려 콘돔이 찢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 사후 피임약은 정말 긴급할 때 한번만 먹어야 한다.(여러 번 먹으면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 호르몬 조절이 상당하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전옥희 샘의 한마디만 더!]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일본에서 비롯되었다.

지금의 우리나라 성문화는 온전히 일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성에 개방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매매문화도 우리나라에 넘어오기 전까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있는 일본의 '유곽'이라는 곳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생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남자 측에서 관계를 원한다고 해도 기생이 거절을 한다면 남자 측에서도 받아들였답니다.

그거 알고 있니?
진정한 성적인 쾌락은 서로의 몸을 존중해주며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짜릿한 쾌감이 있다는 거 명심해!!!!



성교육보다 야동을 먼저 접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제대로 성교육 좀 합시다!

육체적인 성행위도 분명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며 우리 청소년들도 제대로 알고 잘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이지 않을까? 19금으로 욕박지르고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의 눈만 가리려 하며 꼬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성교육이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여전히 야동을 보며 사랑을 배우고 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틴틴이슈] 인천 고등학생 교내 교사폭행 사건

어떻게 교권과 학생인권이 반비례인가?

교권을 바로 세우려면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어났다. 2학년 학생이 60대 교사를 때리고 연필꽂이까지 던졌다고 한다. 학생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교권이 무너졌다.’ ‘교실 붕괴’라는 단골 레퍼토리가 언론지상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소년법을 없애고 청소년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기만 하다. 마치 학생들 때문에 교권이 약화된 것처럼, 학생인권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정책 때문에 교권이 침해 받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과연 그런가? 교권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 때문인가? 학교폭력이 여전히 청소년범죄가 흉폭해지는 것이 학생들 때문인가? 정말 묻고 싶다.

청소년이란 시기는 ‘가만히 있으라’ ‘시키는 대로 해’가 잘 안 통하는 때다. 방황하고 반항하기도 하며 나름의 성장통을 겪는 그런 시기다. 요즘 청소년이 문제라고 늘 말한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고 청소년들이 문제가 아닌 적은 없었다.

생각해보자. 그런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물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롭고 생활도 편리해졌다. 잘 먹고 잘 입고 용돈도 넉넉하며 그 비싼 스마트폰까지 하나씩 들고 다닌다.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 부모나 교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존중받고 있는가? 가정에서 소중한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사랑 받고 있는가?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혹시 어느 순간부터 비교 대상이 되고 루저나 낙오자 취급을 당하지는 않는지 말이다.

여전히 학교는 학생들이 그냥 약자다. 나이가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시킴을 당하는 존재이고 복종해야 하는 약자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학교에서 못생겨도, 키 작아도 공부 못해도 좀 산만하고 떠돌아 대도 존중받으며 약자로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을까?

교사들은 선생님이 권위가 사라졌다고 한다. 학생들을 너무 오냐오냐 떠 받들다보니 학생들이 안하무인이라. 말 한마디 함부

않다. 만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의식이 가득하다면 그 학생이 교사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또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말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글씨를 쓸 정도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비교 당한다. 그렇게 이뽕 받던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또는 성격 때문에 형편없는 아이, 모자란 아이 취급을 받는다. 학교에 가면 어떠한가? 교사들은 차별이 일상화 되어 있고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공부에 재능이 없거나 취미가 없거나 마음이 없는 학생들은 문제가 취급에 낙오자로 전락된다.

학생들은 그런 학교를 가고 싶겠는가?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권리를 갖고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이든, 교사든, 다르지 않다. 학교든, 가정이든 다르지 않다.

로 할 수 없고 때릴 수도 없어서 선생질 해 먹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학생은 교사를 무시하고 반항하며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른 것이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권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 반비례일 수 있는가.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권리를 갖고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이든, 교사든, 다르지 않다. 학교든, 가정이든 다르지

런 학교를 인정하고 싶겠는가? 그런 교사들이 존경스럽겠는가? 하루하루 부모들의 못마땅함을 커져가고 하루하루 학교는 건디기 힘든 감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두고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 학교교 교사지 않은가? 부모들은 그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것만이 관심사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 학생인권과 교권이 반비례란 말



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다. 교권은 근본적으로 교사 스스로 지키고 바르게 세워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권을 올바르게 세울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특정 일부집단을 위한 입시제도를 완전 개혁하는 것. 또 하나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최대한 높이는 것뿐이다. 둘 중 하나면 교권은 반드시 그것에 비례해서 제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아다시피 교육제도는 항상 단 시간 내에 바뀌기 힘들다는 핑계일테니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 할 것이다.



Discussion

필통학생기자 300자 토론

교사와 학생은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옛날에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는 학생의 인권 문제 때문에 체벌은 많이 사라지긴 했다. 근데 학생의 인권 문제만 챙기다 보니 교사의 인권은 소홀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를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교사들도 본인의 교권이나 인권이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로 존중이란 게 없다.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면서 서로 잘 배려하면서 지내야 한다.

김정빈(진주고2)기자

옛날에는 학생들을 가혹하게 체벌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여 체벌을 금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도 중요시 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 사건처럼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들을 쥘어 잡는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내 경험으로는 어떤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런다. 결국 학생들 사이에서 그 선생님을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았고 수업시간에도 수업시간이 조금 어렵다. 따라서 교권도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교권만 강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도 잘 보장되서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아지면 좋겠다.

장은영(진양고1)기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였다.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있다 해도 여전히 체벌, 폭언 등이 존재한다. 얼마 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봤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문제가 안 되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문제가 된다? 필통 대표님이 하시던 말씀이 개가 사람을 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삿거리가 된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난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건 기삿거리가 안 되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기사거리인가?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건 당연하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잘못됐다고 당연시했던 것들에(잘 했다는 건 아님) 왜? 라는 질문을 통해 의문을 가져 보길 바란다.

정만규(동명고2)기자

그 동안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뿐 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을 들을 때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둘 다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왔다. 또 항상 두 개의 권리는 수평을 이룬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 체벌을 없앴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 또한 양성되어야 할 텐데, 늘 우리나라의 교육과 제도는 하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단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과 같이 주기적인 존중 교육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알려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해밀(진주여고2)기자

나는 교권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솔하는 선생님과 그렇지 못한 선생님으로 나뉘게 된다. 그것이 꼭 신체적인 우위나 체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무너지는 교권의 책임이 학생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이번 인천 교사 폭행 사건은 큰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선생님께 떠넘기려는 것도 아니다. 그 당사자는 응당 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꼭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체벌만이 답인 것인지, 학생을 통솔하는 것도 교사 역량의 한 부분이 아닌지, 반면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조차도 나는 의문이 들었다.

곽병규(진주고1)기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주에서의 교사의 인권은 그다지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 버릇 없는 잘못된 행동을 가한 학생들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벌점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징계할 권리가 있고 체벌이 금지된 이 시대에 이는 가장 실용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체벌할 권리가 없는 대신 존재하는 학생들을 징계할 권리는 잘 사용한다면 학생들을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교에서 이 둘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진(사대부고2)기자

이것은 그저 학생이 교사에게 그저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 라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위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것이 교사의 권위가 약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고등학생쯤 되면 어느 정도 가치관 형성이 되고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 되기도 한다. 이 시기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도 아는 내용이다. 고등학생이 학교선생님을 그것도 단지 야단을 들은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은 어떤 폭행죄이며 이것은 교육적 차원에서가 아닌 법적으로 처벌해야함과 동시에 청소년 처벌금지 대상의 연령을 낮추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수현(사대부고1)기자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충고나라에 사기 글을 올리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늘 청소년법이라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약한 벌과 심지어는 피해자를 전학시키기도 하는 처벌 아닌 처벌을 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교사는 뭐든 직업을 떠나 일단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척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해원(삼현여고1)기자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많은 기사를 보았으나, 어떤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게 되었는지 정황을 알 수 있는 글은 보기 힘들었다. 그 학생은 보건실에서 쉴 것을 허락받았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체육 수업을 해 빈 교실에 있었다. 체육 수업 도중 비가 와 교실로 들어왔는데 그 학생을 발견하고 야단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대부분의 기사에는 이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수업 중인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갔다고만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학생의 상황을 파악했는지 따위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절대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극적인 면에만 집중한 보도들은 그 학생에게만 주목하게 하려는 것으로 잘못되었다.

김동민(동명고1)기자

지금 내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현주소를 말하자면 아직도 절대적인 약자는 학생이다. 생거부를 기록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은 아직 하늘처럼 높고 가끔씩 생거부를 빌미로한 협박 아닌 협박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교권이 지켜진다는 의미는 교권이 학생의 권리를 짓밟고 올라선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다. 교권과 학생의 권리는 동등한 선에 놓여있어야 한다.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폭행하고 대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염성민(중앙고2)기자

[맏칸년맏반-신청] 명신고등학교 2학년 5반편

모든 친구들이 화목하게 어울리는 똥끼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반!

명신고 2학년 이과 첫 번째 반이자 담임이 학년부장인 2학년 5반.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못해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 우리 반이다. 누구 하나 뒤떨어지는 친구 없으며 모두가 화목하게 잘 어울리는 반. 개성 넘치고 똥끼가 흘러 넘치는 친구들이 많은 재밌는 반으로 명신고가 인정하는 자칭 최고의 반이다.



우리 담임샘 소개 박근태 선생님!
명신고 국어 선생님이시자 2학년 학년부장 선생님이시다. 매일 식사시간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달려가시는 걸 보면 무지막지한 애처가이시거나 집밥에 중독되신 듯하다. 학생들을 대하실 때 공부압박이 심하지 않으시며 자주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누구나 좋아하는 담임선생님이시다.

나의이상형 & 하고싶은 말

이름	하고 싶은 말	이상형
강민구	비행기 타고 싶다	예의 바르고 조신한 여자
강태홍	예쁘다	김은지
김성욱	?	!
김승현	친신 보내라	예쁜 하얀 여자
김영탁	자책글	헤딩 잘하는 여자
김재현	근태 형님 화이팅	행복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
민선태	감당 되겠어?	입 큰 여자
박경찬	게임 같이 할 사람?	섬유유연제 향 좋은 사람
박규현	경상대	지민
박상원	010-3180-3875 기다릴게	라면 잘 끓이는 여자
박준환	공부 잘하는 벼 좀 알려 주세요	이지은 같은 여자
박현우	10cm 만...	웃을 때 눈이 이쁘고 키가 작은 여자
박현준	살 냄새	좋은 냄새나는 여자
백정현	아빠깁 수요일~	까칠한 여자
서예찬	어디 있니?	매력 있는 여자
석민성	속가 존잘	밥 잘하는 여자
엄동현	나랑 영화보러 가자	벌레를 손으로 잡아주는 귀여운 여자
여예모	나 까매요ㅎ	나보다 하얀 여자
윤성준	스무살 되고 싶다	여름이 어울리는 사람
이민성	ㅇㅈ?ㅇㅇㅈ	착하고 귀여운 여자, 롤 잘하는 여자
임경현	배드민턴 나랑 칠 사람?	치마보다 바지를 좋아하고 말 이쁘게 하는 여자, 놀러갈 때 특이한 옷 입고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정재욱	2-5 화이팅	OMR 실수 안하는 여자
조동우	잠 온다..	노래 영화 좋아하고 말 이쁘게 하는 여자
하석호	페메 해라	영화보는거 좋아하는 여자
하성욱	배고파..	귀여운 여자
한동희	그러다가 개같이 살다가 개같이 간다	무서운거 잘 보는 여자
한승우	95698050 전화하는 거 좋아함, 전화하자	키163이하 살 좀 있는 여자
허 준	명신고 노래동아리 갈 검색해줘	말 잘 통하는 도라이
허창훈	나랑 밥 먹을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여자
홍현준	치킨 무러가자!	착하고 쿨한 여자

긱지 많은 복권이가 했던가?



강태홍:잘생긴 얼굴, 긴 다리, 넓은 어깨, 엄청난 비주얼 자랑한다. 하지만 허당끼가 흥건하게 넘친다. 과묵하게 생긴 첫인상과 얼굴에 비해 장난끼가 많다. 그래서 반전 매력을 자랑한다. 우리반 유일한 커플이다. 이놈만 승자다.



김승현:시커먼 피부, 아재 같은 가르마 머리, 그리고 뱃살... 하지만 합쳐보면 꽤 랜장은 비주얼이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늘 정시를 권유한다. 공부를 잘해서 민음이 가는데 정작 본인은 수시로 대학을 간다.



김재현:캐나다 밴쿠버 출신...!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살다온 경험 이 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굴이 외국인 처럼 생겼다. 안경을 벗으면 잘생겨지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농구와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우리 반, 제일 넓은 어깨를 소유하고 있다.



박상원:릴랑 뮤직 메이커, 마이크 드로버, 볼테가 잘 어울리는 남자, 셔츠와 교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 보안 피부 착한 성격 많은 장점을 소유한 친구다. 그렇기에 여자가 조금 자주 조금 많다.^^



박준환:우리 반에서 제일 착하다. 물론 본인 생각이다.ㅋㅋ 물론 착한상, 모범상 그런 거 받아본 적은 없지만 착하다는 건 절대 틀린 말은 아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임에도 흔하게 볼 수 없는 나름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아이다. 공부에 대한 열정은 불타나 성적은 잘 안 나온다.



박현우:매끈하고 뽀얀 피부에 동그란 안경을 썼다. 그런 안경이 잘 어울리는 친구이다. 키는 조금 작지만 성격이 좋고 착해서 너무나 두 귀엽다.)(그런데 미스터라고 불거사의한 일, 안경을 벗으면 절대 눈을 뜨지 않는다? 왜 그럴까?ㅋ



서예찬:귀염상인 얼굴에 비해 큰 키와 약간 의? 살을 가지고 있어 덩치가 크다! 축구를 잘한다. 아마 몸만 조금 가벼웠다면 필드위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녔을 것이다. 머리결이 좋다. 칠랑 칠랑...(현우랑 년 머리에 대해 뭘 하는거녕...^^)



엄동현:우리 반 위험인물.. 이유는 알 만한 사람은 알거다. 반티 등번호는 2, 이름은 '썩게'라 적혀있다.^^ 물론 애들이 만들어낸 컨셉이다. 간지러움을 너무 잘 탄다. 찌르지도 않고 손만 가져다대도 웃겨 죽으려 한다. 학교동아리 '갈'에서 보컬을 담당하고 있으면 이번 청수상반기 공연에서 불행을 부른다. 애가 불행 부른 애..^^



여예모:나무늘보 같은 장태이다. 말 그대로 그냥 나무늘보다. 친구들이 불을 끄면 보이지 않는다고 놀려도 웃음으로 넘기는 착한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지 않을 때는 방방 뛰어서 선생님들한테 혼날 정도다. 와칸대 포에버!



임경현:우리반 패피! 웃을 잘 입는다. 꾸밀 줄 아는 남자! 뽀얀 피부, 긴다리 덕에 옷빨이 잘 받는다. 그리고 자취를 한다!! 모두가 부러워한다. 애들이 여친 생기면 델고 간다는데 왜 그런지는 전~혀 이유를 모르겠다.^^ 배드민턴을 전국에서 4위를 했지만 친구들은 1등도 못했나면서 놀린다. 하지만 막상 같이 해보면 숨소리도 내지 않는다.



조동우:한 마디로 짐탱이..... 수업시간에 잠만 잔다. 뒤에서 보면 머리가 없다. 잘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 머리가 실종된다. 정말 이상하게도 수업시간에 맨날 자는데 공부는 잘한다. 큰 키와 긴 다리 소유!! 옷빨은 끝내준다. 그리고 반듯한 외모의 소유자!!



하석호:방부제 얼굴을 가졌다.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얼굴을 유지하고 있다. 앨범을 찾아보면 정말 똑같다... 그리고 우리 반 핑거마스터...! 안마를 매우 잘한다. 받으면 뽕! 가지는 않지만 중독성이 있어 오늘 받으면 내일 또 받게 된다.



한동희:우리반 탱커, 절대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 그 이유는 자주 먹어서다. 이유는 본인도 알지만 고치지 못한다. 워든지 열심히 하고 운동신경도 생각보다 좋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은 못 친다. 뭘 어떻게 공부 하는지 궁금하다. 생각보다 웃도 잘 입는다. 센스 있다.



한승우:체격에 비해 힘이 센 친구이다. 가끔 친구들을 장난으로 때리는데 빔처럼 빨라 막아도 아프다. 그니까 때리지마 밥 먹을 때는 외구 외구~ 먹는데 돼지 같다. 아침 수업시간에 잠시 줄 때 놀리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다. 하지만 걸리면 간다.. 요즘 살이 찌서 뱃살이 말랑말랑해 만지기 좋다.



허준:우리 반 문이기 메이커이다. 아무 말 안하고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 질 정도다. 그리고 갈!! 부장이다. 램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가관, 아니 장관이다. 성격은 태양처럼 너무 밝아서 반에서 너무 날뛰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웃음 주는게 취미일 정도로 재미있다. 자칭 존댓, 존잘, 게임천재라고 우긴다.



홍현준:공부를 1도 안 해도 성적 잘 나오는 재능충이다. 허니콤보를 하루에 한 번씩 먹으러 가자고 할 정도로 좋아한다. 옆구리에 손만 대도 간지러워서 미치려고 한다. 공부할 때는 진지하다. 진지할 때 건들면 때릴지도 모른다. 이런 장점과 착한 성격이 합쳐 친구들이 많다. 물론 여자도 ^^

[맏칸년맏반]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6반

행복지수 전교 1등! Do you know 육반?

물리 전공이신 담임선생님 덕분에 문과반이지만 물리만 정복한 반, 체육은 못해도 응원만은 넘사벽 1등인 모순이 넘치는 반이다. 시험기간 행복지수 만큼은 전교 통틀어 1등. 단순하지만 유쾌한 친구들 덕분에 수학여행 때 우리반만 배

를 놓치는 사건도 있었다. 그 덕에 한 배를 타며 가족같이 끈끈한 사이가 된 우리반!!! 수업시간엔 좌측은 듯 조용해 양전한 반인 줄 알지만 사실 쉬는 시간만 되면 우쭐쪼장 시끄러워지는 것은 담임선생님만 아는 비밀이다.



우리의 '큐티뽕' '백택남' 박재원 담임선생님! 물리, 화학, 생명, 지구 등 많은 과학과목 중 자신의 전공은 과학이라며 자신감을 뽐낼 하신다. 전교생이 인정하는 피부 미남으로 현미경으로 봐도 모공이 보이지 않는다. 커피쇼 덕후로 매일 업데이트되는 사연들을 모두 섭렵하고 계신다. (폴더에 152,786개 있음.) 날씨 좋고 기분 좋은 날 우리에게 망원경으로 별을 보여주시는 로맨티스트이시다. (쌤이 새롭게 발견한 별은 6반 별...☆) 그나저나 쌤! 우리 6반 좋으시죠?

나의 이상형 & 하고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1.김민주	나보다 조금이라도 키 크고 귀여운 사람	빨리 겨울방학 했으면 좋겠다.bb
2.김수연	키 크고 슬렉스가 잘 어울리는 남자	집에 가고 싶다
3.김수현	불 살 뽕뽕한 남자	달링~ 좋아
4.김시현	키 크고 공부 잘 하고 옷 잘 입는 남자	얼룩말
5.김유정	나만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전교회장이 넘치는 서울남자	인스타로 와
6.김태하	목소리 좋고 운동 잘하고 키 크고 그림이나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	도 매니저, 달링 좋지?^m^
7.김혜영	키 크고 옷 잘 입고 근육질 몸매에 웃기고 재밌는 사람	두 끼 가자
8.도은영	차은우 말고 도경석	요즘 읽는 책 : 동보, 내 인생
9.박소윤	미소와 눈썹 곱이 예쁜 남자	instagram : sooooooov
10.박수정	키 크고 어깨 넓고 운동 잘하는 남자	수조네 민박 가자!
11.박시영	사격 잘 하는 남자	곰창 먹고 싶다!
12.서민경	키 크고 섹시한 손흥민 같은 남자	아시안게임 보면서 떡 먹고 싶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 원추♥)
13.손다원	섹시한 사람 (...)	예진과 브베
14.손보경	손아영만 아니면 됨	지구정복
15.손아영	난 이미 김희철이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주정복
16.오소연	청순하고 핏줄이 섹시한 미남	이너피스 안구정화 박효신
17.이예진	키 크고 웃긴 남자	류가은 잘 살고 있나? 보면 연락해ㅋㅋㅋㅋ
18.이윤지	사이다 캔 한손으로 따 줄 남자	태환아~ 나 사이다 캔 한 손으로 따줄 ㅎㅎ
19.이진아	이쁘고 인성 좋은 사람	고양이 최고
20.임예진	따뜻하고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	ㅅ!^
21.전지현	수트 니트 코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하하 버스
22.정연주	코가 이쁜 연두만의 프린스☆(왕자는 안됨)	사실 연두만의 프린스는 윤지임
23.정지우	운동 잘 하고 귀여운 남자	하수진 나도 나왔다 나 기여어?
24.조정인	중저음 톤의 말투가 이쁘고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착한 남자	오연서~!! 우리 우정 영원히♡
25.최아정	나랑 다정한 사람 보러갈 범고래 ??	이채진, 이연서, 배가이 다 같이 놀러가자! 소장 이 언니 수능 대박 나서 맛있는거 사줘♡
26.최영은	예쁜 사람	로또 당첨
27.최임나	전정국	유정이 지수 란해씨 도움이 보고 싶어
28.하현주	교복이랑 수트가 잘 어울리고 운동 좋아하는 남자	친구야 연락 좀 하자^^
29.홍수영	국어 잘하고 다정하고 어깨 넓은 남자	비투비 사랑해!!

매력뽕은 멋진 친구들!



손다원: 2학년 6반의 큰 언니. 첫 만남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작은 얼굴에다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아주 예뻐요. 하지만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양말부터 벗어 던지는 털털함이 두 배로 매력적. 잘 때는 이마를 책상에 박고 자서 일어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유쾌한 입담으로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염둥이로 항상 신고 다니는 곰돌이 슬리퍼의 출처를 알고 싶지만 교모가 찼다는 말뿐...



김유정: 예비 서울대 미대생 20학번. 완소 퍼펙트 부반장. 상큼한 미소와 뽀얀 피부로 전형적인 기요미 토끼상. 그 덕분에 교실에 유망함을 많이 육성하고 있음. 공부와 그림 둘 다 잡은 금손 보유자로 겸손하기까지... 동명중 국어선생님 딸. 수준급 글솜씨를 겸비한 문학소녀. 차분해 보이는 첫인상과 다르게 친해지면 조잘조잘 말 많이 많아짐. 수학 쌤 피셜 시집 잘 갖 것 같은 사람 1순위.



전지현: 전지현 씨 바C~~~ 우리 반 비올과 키를 담당하고 있어서 만간에 서정훈이랑 약혼할 듯!! 하지만 이상형은 하정우로 그애 버금가는 감동사 드립을 많이 친. 그녀 피셜 하정우랑 드림캐트를 해도 이길 자신 있다고... 우리 반의 돈줄을 잡고 있는 학급비 총무로 미래 실랑꾼 유망주임.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마이크를 아주 귀여워해서 관련물품을 종류별로 사다 오는 중.



도은영: 수학 공식 대신에 안두 암기에 두뇌 회전을 올린 현생 포기녀 하지만 그녀는 최근 좌뇌를 공부에 투자하는 큰 결심을 함. 기가 100점이 그녀의 목표(을 학교 기가 어려움). 작은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가 자랐지만 머리에 씨뽕키를 사육 중. 그녀가 지는 것이 궁극이라면 고개의 각도를 보라! 속였다면 씨뽕키를 먹는 중일 것. 하늘을 본다면 자고 있는 것... 자칭 독서하는 여자.



서민경: 큰 눈에 오뎅코, 가름한 얼굴... 게다가 낯선하기까지. 하지만 수업시간마다 코박고 자느라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음. 하지만 웃기면 돼지 소리를 내서 과한 존재감을 표출함. 어두운 곳을 갈 때면 기가 느껴진다며 음산한 매력을 마구 발산함. 직접 겪은 기묘한 씬을 푸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취미...☆



정지우: "세상은 넓고 연하는 많다"는 것이 그녀의 좌우명으로 연하할러임. 크러쉬 뽕치는 명 때리기 스킬 보유자로 불도 모르는 디비디비답까지 섭렵함. 그런걸 보면 그녀는 사실 명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만 하는 천재일지도 모름. 매일 2L 물통에 보리차를 끓여오지만 정작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반 친구들. 아마 그녀는 기부를 좋아하는 걸지도...☆



김혜영: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온 교포. 미국에서 신나게 놀다 와서 한국 수학 수업을 제일 힘들어함. 하지만 엄청난 친화력으로 까칠한 수학 선생님까지 훌쩍 시킴. ㅋㅋ 6반의 아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수업시간만 되면 꿈에서 일하느라 매우 바쁜 커리어 우먼임. 365일 다이어트 중인 아가리여터.



김시현: 아담하고 귀여운 결모습과 다르게 내면은 성숙이 넘치는 반 육식. 어른스러운 목소리에 가끔씩 진지해져서 인생 충고 해줌. ㅋㅋ 목표가 뚜렷해서 강한 의지로 똘똘 열심히 하는 노력파. 하지만 똘똘 놀자라는 마인드로 모두의 리스펙을 받고 있음. 잘 웃지만 웃는 순간마다 왜 웃는지 의문. 남은 2학기 동안 웃음코드 찾는 게 모두의 숙제임.



이윤지: 오늘도 여전히 맨 앞에서 숙면 중인 우리 반 별명부자. 웬만하면 움치치, 움지(움지거지), 움번, 움퀴벌레 등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남. 큰 눈에 달걀형 얼굴. 매력적인 외모로 최근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에게 구매를 받았지만 칼같이 처분. 옆에 있으면 너무 떠들어서 귀에서 피남. 우리반 대표 힘찔러 김하은에게 공개 구혼까지 한 용자임.



정연주: 도도해 보이는 결모습과 다르게 순진함. 하지만 귀에 가득한 피어싱... 과연 그녀는 정말 순진한 것일까...? 항상 심박한 얼굴로 고민 상담을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정말 별 거 아님. 정상인인척 코스프레 하고 있지만 매번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드립 날리는 거 보면 애도 정상은 아님. 단호하게 이윤지를 컨트롤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포기하고 같이 손잡고 놀러다님. ㅋㅋ



오소연: 병X 같지만 예쁜 친구. 근데 진짜 정상아 아님. 항상 참신한 발상으로 모두를 당황시키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생각이 없음. 항상 수업시간에 쿼션을 꺼내고 대놓고 지지만 정작 자신은 들켜지 않는 줄 알. 화를 내서던 선생님들도 그녀의 목소리를 걱정할 정도로 매번 정상적이지 못한 각도로 숙면 중. 나야차를 신경 쓰지 않는 쿨한 연애관을 가졌음. 이상형은 설경구 (아빠뽕^^)



박수정: 첫인상은 인간모지. 근데 목소리는 허스키해서 반전매력 뽕뽕. 목소리는 자고로 뱃심으로 내는 것! 복식호흡을 18년째 유지 중 (아마 양수 속에서 복식호흡 했을지도). 체육부장은 따로 있지만 사실상 그녀가 실세. 늘 피구를 하려고 제안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시선을 피함. 유쾌한 모습과 다르게 자기 할 일은 꼭 부러지게 함. 우리반 사진기사이기도...



박소윤: 본인이 키우는 추(햄피) 흉내를 내는데 정말 하찮고 귀여움. 손재주가 정말 좋은 친구. 특히 슬라임을 잘 만들어서 물품 사는 게 취미. 엄청난 인스타충.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재채기 BEST 5안에 들. 들어보면 재채기를 하는 척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듯함. 영상 편집 장인으로 유튜브 하던 구독자 수 터질 각 (인스타에 다 있음).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배려심이 깊은 친구로 전국임...☆



하현주: 블랙핑크 부장으로 춤을 위해 현생을 포기한 대단한 친구. 실물 여신인데 사진찍이 안 받아서 안타까움. 맨날 잘 거면서 꼴을 왜 안내는지 의문임. 썸 첫인상과 다르게 착하고 유순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만 개우면 절대 안 됨. 하지만 최근 맨 뒷자리에서 맨 앞자리로 급격한 자리변동을 겪으면서 그녀는 성장하고 있음. 2학기 최대 이슈는 그녀의 성장 스토리를 잘 풀어내는 것. 반 친구들이 한 뜻으로 응원 중.



손아영: 몸매 갑. 키가 큰 편이 아니지만 비율 때문에 키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음. 발표할 때만 달라지는 그녀의 목소리 때문에 일상과 발표시간 중 무엇이 진짜 목소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음. 아차시간에 항상 남지만 왜 매일 잠만 자는지 미스테리. 수학시간은 아영이의 필수 숙면시간이지만 수학 점수가 꽤 높다고 함... 그것도 미스테리.



이예진: 숨겨져 있는 귀요미. 오랜지를 연상시키는 과즙상. 과즙이 뽕뽕하는 상큼함으로 가끔씩 엉뚱한 매력을 표출함. 엄청난 노력파로 항상 상위권에 속해있는 뇌섹녀. 수업시간에 잘 졸지만 엄청난 내용으로 티가 잘 안남. 잘 조는데도 성격이 좋은 것을 보면 아마 꿈꾸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듯함. 근데 사실 애가 우리 반 반장...☆

[취재/ 이윤지(삼현여고2)기자]

[동네투어] 우리 동네 가볼만 한 곳, 상대동편

필통과 함께 상대동 마스터 하기!

대한민국 남쪽의 작은 도시, 진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아마도 진주의 동네 곳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청소년들은 집과 학교, 학원외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필통에서는 '동네투어'를 통해 각 동네에 청소년들이 가볼만 한 곳을 직접 취재해 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진주시청과 연암도서관으로 대표되는 상대동이다. 삼현여중고와 기계공고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네다. 청소년들만의 핫플레이스들을 찾아보았다



hot1 진주 연암 도서관

진주시 모덕로47번길 13-17/상대동

연암 도서관은 구 법원 뒤쪽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연암 도서관과 시립 도서관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러 자주 가는 곳이다. 계단이 많아 올라가기가 힘들다. 시험기간에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

열람실은 여학생 전용, 남학생 전용, 일반 열람실 총 3실이 존재하며 각각 92석, 140석, 76석이다. 종합자료실에는 약 190,000권의 도서와 약 9,000종의 디지털 자료, 75종의 간행물, 32종의 신문이 마련되어있다. 연암도서관은 디지털실뿐만 아니라 노트북실이 있는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총 30석으로 노트북 소지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기 휴관일은 매월 첫째 월요일이다. 그리고 신정, 설, 추석 연휴에는 쉰다.



hot2 복지 불링센터

진주시 상대2동 33-106(근로자가족복지회관)

상대동엔 불링장도 있다. 공단로타리 근처 조금 외진 곳이라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는 곳이다. 진주YWCA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찾으면 된다. 학생 가격이 다른 불링장들에 비해 약간 저렴한 편이다. 특히 할만 것은 다른 불링장이 모두 합성레인을 쓰는데 비해 이곳 불링장은 우드레인을 쓰고 있다. 단풍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도 6시 이전에 게임을 할 경우 게임 당 1,500원이다. 특히 이곳은 제일여고 불링 동아리 학생들이 훈련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hot3 진양도서관

진주시 상대동 302-11

옛 교육청 큰 사거리에 위치한 서점이다. 삼현여중고 삼현여고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 삼현인들이 자주 방문한다. 다른 학교학생들도 찾아 방문할 정도로 꽤 유명하다. 필요한 도서는 예약제로 주문이 가능하며 약 3일 정도안에 받아 볼 수 있다고 한다. 포인트 제도가 있어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필통의 배부처이기도 하다.



hot4 1318 게임랜드

진주시 동진로 141/ 상대동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와 진주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인 1318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밖으로 시설이 매우 좋아 놀란 곳이다. 한 곡에 300원인 동전노래방도 있다. 방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빼곡한 낙서들과 함께 쾌적함과 시원함을 위한 선풍기가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많은 노래방,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볼 수 없는 자외선 살균기가 마이크 거치대에 붙어 있었다.



hot5 신나고 코인노래연습장

진주시 상대동 302-60

1318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다. 학교와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 근처이기도 해서 어른들도 자주 이용하는 듯하다. 1318보다는 사용료가 조금 비싼편이다. 신나고는 오락기구가 없고 코인노래방 시설만 있다.



hot6 다이소

진주시 상대동 300-5

요즘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 중 하나. 바로 다이소다. 상대동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진주도동점을 찾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상품이 1~5천원으로 10000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의 쇼핑공간으로 인기다. 학교시간인 5~6시쯤에는 학생들로 가득 매워져 있다.



hot7! 학생들이 말하는 상대동 맛집

춘천닭갈비

진주시 상대2동 302-118

삼현여고 앞, 짬뽕닭갈비가 생길 정도의 닭갈비 클라시! 삼현여고 닭갈비란 브랜드(?)가 생길정도로 유명한 학교 앞 맛집의 선두주자. 삼현여고 앞 춘천닭갈비다. 식당안은 늘 손님으로 가득하다.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삼현 닭갈비를 찾는다. 80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고 한 끼 식사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삼현여고학생들도 애용한다. 1000원까지 볶음밥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디저트카페 블랙바닐라

떠오르고 있는 상대동 디저트 카페다. 깔끔하고 따뜻한 감성의 인테리어로 사진이 예쁘게 나와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라온다. 스누피 등 다양한 캐릭터 마카롱이 인기다. 가격은 6천원대로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반반스프링스

타 카페들과 비슷한 가격이지만 학생들은 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 교복이나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층까지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안성맞춤. 평일 오후 카페에 들리면 삼현여고 학생들로 가득 매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갤러리&카페 더 담

갤러리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하다. 스튜디오도 있기 때문에 조별과제하기 좋은 장소다. 스튜디오는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심플하고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햇빛이 잘 들어오는 편이라 사진 찍기 좋다. 가격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찾는다.



서울설령탕

학생들이 적잖이 많이 찾는 집이다. 이 식당의 특징은 24시간 영업이라는 점이다. 늘 손님들로 북적이는 상대동에서 소문난 맛집이다. 설령탕뿐만 아니라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까지 맛있다. 설령탕 한 그릇 가격은 8,000원이다.



[기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선생님에게 비판받을 권리를...

학생이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 중이 치고 교실로 들어 온 교사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선생님의 교육목표는 너희들을 좋은 애 엄마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이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도 이상하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을 꺼냈다. “우리는 애를 낳기 위해 교육 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교육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 답변 하나로 우리 반은 그 교사의 35분 일장연설을 듣게 되었다. 그의 일장연설의 주된 내용은 “저 출산이 문제다.”, “애를 2명 이상 낳지 않으면 애국가자가 아니다.” 등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 그 교사는 학생들에게 35분 동안이나 일장연설을 해야 했을까. 수업 시간, 학생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교사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런 반박을 들었더라면 그는 똑같이 35분씩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교사에게 반복하면서 떠돌았을까. 교사들은 왜 학생에게 비판받을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까. 같이 토론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학생에게 강요하기만 하는 걸까? 학생들의 비판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볼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 학생의 비판이나 반박을 듣지 못하고 교사 혼자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는 광경을 너무나 자주 보았다. 교사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

계에서 우위에 있고 학생을 일방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보다 똑똑하거나 맞는 말을 하는 학생을 가만히 놔두질 못한다. 상대의 말을 끊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막아서려 한다.

교사들은 이런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비판을 받으면 자신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을 까봐, 학생에게 말로 지는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한다. 이러한 권위적인 생각이 학생이 교사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결국 서두의 사례에서도 해당

를 한정시키는 행위다. 누구와도 상호작용하는 동등한 인격체가 될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다. 학생에게 지는 무능력한 교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교사와 학생 간의 토론이나 논쟁을 불가능하게 한다.

학생이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실이 된다면 교사 또한 교육내용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내용을 학생들과의 피드백이나 논쟁을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정치적인 의견을 표하면 안 된다’라는 경직된 생각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여 교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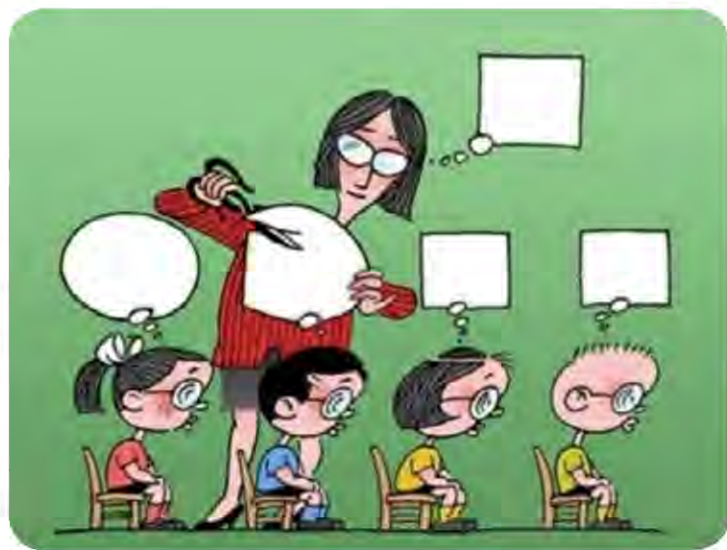
"학생은 학문을 주입당하는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펼쳐 보였다.

교사도 비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학문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닌 서로 상호작용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거나 논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 주입하는 것은 교사의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일방적이고 편향된 사람으로 스스로



사회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인식이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의 토론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풍경이 될 때,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위계관계가 사라질 때 교사의 교육권(교권)도 보장될 수 있다.



교사는 학문을 전하는 직업이다. 누구든 완벽할 수 없고, 학문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100퍼센트 옳거나 정확한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

지 의무이기도 하고, 학생의 교육권(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동시에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교사가 교실의 제왕이자 주입자가 아닌 한 명의 같은 ‘인간’으로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논쟁하기 위해 필요한 그의 ‘권리’이기도 하다.

교사들에게 비판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같은 인간으로 학생과 마주하기 위해, 교실 안에서 함께 논쟁하고 토론하기 위해 말이다. 학생에게 지기 싫어 35분간 웅조한 일장연설을 늘어놓아야만 했던 당신도 언젠가 비판받을 권리를 쟁취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교실에서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글쓴이 : 늘해랑(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06년부터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청소년운동단체입니다. 아수나로 진주지부는 언제나 함께할 회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가입 및 후원문의 : 010-9770-8603

기 때문에 교사는 비판을 받을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아닐까? 더 나아가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으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학생의 교육권(학습권)보장을 위한 교사의 의무다. 학생은 학문을 주입당하는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사에게 ‘학생에 의해 비판받는 것’은 교육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한

[기고]

학교폭력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소년법 개정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한 편에선 촌스러운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열린다. 학교안에선 줄아대는 학생들을 두고 학교폭력 근절 예방교육이 빠짐없이 실시된다. 그러다 간 한술 더 떠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느니 마느니 학생들에게 대한 협박도 이어진다.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듯 하겠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변한 건 없다.

학교폭력과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싸움은 그 근본이 다르다. 학교폭력은 범죄다. 물리적 권력이나 조직으로 이루어진 권력으로 상대적 약자에 대해 신체적 해를 넘어 인간성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학교는 우리사회의 거울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은 늘 배운다. 태어나면 서부터 무엇이든 배움의 연속이다. 그 배움은 사람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커가면서 아이들은 차이가 생긴다. 키도, 힘도 차이가 나며 생각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연한 차이가 작은 권력이 되고 폭력의 원인이 되어 버린다.

답은 거울에 있다. 우리사회는 힘과 권력이 얼마나 나쁘게 쓰여 지고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지 연일 뉴스로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 재산의 차이, 돈벌이의 차이, 하는 일의 차이, 외모의 차이까지도 그것을 차별로 만들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받게 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생중계 해 준다.

그 배움 덕에 아이들은 자신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욕을 잘한다는 이유로,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괴롭힌다. 자신이 늘 보

해진다. 왕따를 시키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을 행하는 아이들이 그것이 정당하고 옳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쁘고 잘못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훌륭한 아들 딸이며 나중엔 또 훌륭한 아빠와 엄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자신이 이 세상의 하나뿐인 주인공이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시킨 결과물이다.

아았던 일이고 알게 모르게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나쁜 것이라고 안다면, 그런 차이는 차이일 뿐이며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오랜기간 보고 배우며 몸으로 체득해 왔다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학교폭력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더 심

지금 당장 공부를 못하는 것이 곧바로 인생에서 낙오한 것 인양, 이미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패배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학교라는 곳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 걸음마를 떼는 출발선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졸업을 하고도 수많은 인생의 여정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들은 공부를 아이들을 평가하는 완전무결한 척도로 사용해



버린다. 그리고 지금의 성적을 아이들의 인생수준처럼 바라본다. 그 시선덕에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까먹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가 소중하지 않기에 자신의 몸도 마음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10년 후 20년 후 자신의 미래가 존경받는 아버지, 여러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유능한 사업가, 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성직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안다면 지금의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며 생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하듯 학교폭력의 이유는 오랜기간 우리사회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통해 가르친 것이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성적이라는 무서운 잣대로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년만 더 참아라’ 라는 식의 마

취주사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CCTV다, 생활기록부다, 경찰이다, 소년법이다 왜 다들 애들만 때려 잡으면 된다는 식인가? 우리사회와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들어야 할 것이다.



[필통편집국]

선생님이 드신 아주 특별했던 약!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었어. 우리 반은 전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산만한 반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골치 아파 하셨지. 그 중에서도 연세가 높으신 수학 선생님의 고충은... 그 선생님이 복도를 걸어오는 발걸음에서부터 느껴질 정도였어.

하루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많이 낮춰놨는데, 알다시피 추운 자리와 더운 자리 애들이 에어컨을 끄네 마네 하면서 욕



신각신 하는 바람에 반이 시끌벅적 다시 산만해졌지 뭐야. 오랜 교직 생활의 내공으로 마이웨이 수업을 진행하시던 수학 선생님도 지치셨는지, 수업이 끝나고 반장에게 “다음 시간에는 교탁 위에 두통약과 물을 올려놔라” 하고 가셨어.

그리고 다음 날 수학 시간, 정말로 반장이 교탁에 약을 올려둔 거야...! 완전 웃픈 광경이지. 깜놀,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은 정말로 그 약을 드시면서 반장을 칭찬했어... 나는 당연히 선생님이나 반장 모두가 장난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인 줄 알고 사알짝 충격을 받은 채로 보고 있었지.

그런데 선생님이 정체불명의 약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한 두 명씩 애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애가 “선생님 그거 생리통 약인데요...!” 라고 한 거야. 대~박! 우리 반은 웃음으로 아수라장이 됐지. 남자였던 수학 선생님은 그 말이 불편하셨는지 잠시 멍 하니 약 봉투와 반장을 어이없이 바라보셨지. 빠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날 수업은 강제 휴강 당했어. ㅋㅋㅋ 그 날 교실이 떠날 것 같듯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생생해.

우연일까?... 첫 눈처럼 다가 온 운명인걸까?

안녕! 난 두근두근 조금은 특별한 나의 연애사를 얘기 해볼까 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던 애가 있었어. 그런데 11살이라는 게, 좋아하는 걸 잘 숨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



아? 그래서 전교에 소문이 다 났지. 근데 또 우린 친구 사이였던 지라 내가 걔를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서로 잘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영어 방과 후 시간에 내가 책을 안 가지고 와서 걔랑 같이 보게 됐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톡톡, 하더라고. 보니까 책 구석 귀퉁이에 뭐라고 적어 놓았더라구. ‘좋아해, 사귄래?’ 라고 적혀져 있었어. 심쿵 했었지. 나는 당연히 좋다고 말했고 짝꿍도 같이 하고 와플도 사 먹고... 정말 순수하게 보냈던 것 같아. 그런데 로맨틱한 봄날도 잠시. 내가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어. 그리고는 카카오톡도 연락처도 없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잊고 살게 됐었던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흘렀고, 고등학교도 멀리 전학해서 오게 된 나는 문득 문득, 그 때 친구들이 생각나서 페이스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다시 그 애를 찾게 된 거야. 개 프

필통숲에 사연을 올려 주세요

신문지면에 채택된 분께는
문상을 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필통숲>으로 오세요. 진주 청소년, 필통 독자 들만의 대나무 숲입니다.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함께 웃고, 공감하고, 화내고, 욕하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신문 지면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 중 채택된 사연에는 소정의 원고료(문화상품권 1만원)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만발 사연, 황당했던 에피소드, 아주 특별한 경험, 분노 유발 사연은 물론 부조리에 대한 고발과 제보도 함께 합니다.



로필 사진을 보는데, 교복이 너무 익숙한 거야. 알고 보니 중 학교 때부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쪽 살았더라고..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던 지역이랑 정말 먼 동네인데 그렇게 운명 처럼 다시 만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야기 하고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이랑 연락하는지 물어보다 보니 다시 친해지게 됐어. 어렸을 때 사귀던 걸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으니까 훌쩍 커버린 걔를 보면서 신기해서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러다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사귀게 된 것 같아. 첫눈처럼 내게 온 건가?ㅋ

결론은 같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어쨌거나 니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신기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 :)

[필통 숲계사판]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진양고 1학년 임수민

음악적인 끼와 흥이 넘치는 내 친구,
수민이를 소개합니다!

수민이는 음악 특히, 팝송과 작곡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반에서 점심시간에 유튜브로 노래를 들을 때 멋진 팝송 선곡을 자주하여 저희 반 분위기를 뛰어주고 귀 호강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유행하는 힙한 댄스도 자주 추고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하는 명랑하고 쾌활한 친구입니다.

매력적이죠? 사진도 감성적이게 잘 찍어서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장



래희망이 음악쪽인 수민이는 행복한 작곡가 로까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멋진 친구입니다.

수민이에 대해 포포 더 알아보자^^

Q. 장래희망은?
A. 음악 PD야!!

Q. 다들 줄 아는 악기 있어?
A. 기타, 드럼 할 줄 알아.

Q. 작곡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뭐야?
A.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관심 갖게 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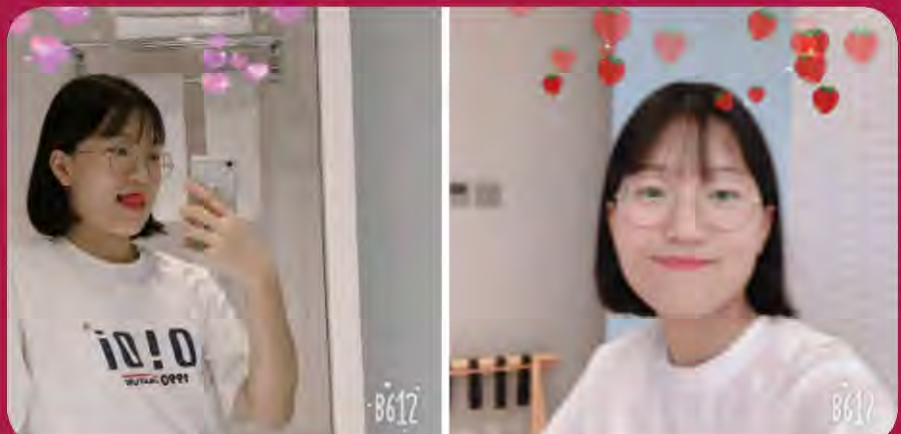
Q. 인생에서 음악이란?
A. 음악은 내 인생의 전부야. 뮤직이즈마이 라임!!

Q. 최종적으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자신의 꿈은?
A.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어^^

Q. 대학진학은?
A. 버클리인데 생각하고 있어ㅋㅋ

Q.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은?
A. 조신해)X

[취재/ 정은경(진양고1)기자]



누구에게나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멋진 친구가 한명쯤은 있죠. [필통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필통홈페이지나 카톡(feeltong1318)으로 신청해 주세요]

[우리 학교에만 있다] 경해여자고등학교 편

하늘마당 + 바디페인팅 - 체육관?



특별한 건물이 선물해 준 '하늘 마당' 과 소축제!

경해여고는 학교의 건물 구조가 'ㅁ' 자이다. 그래서 'ㅁ' 안의 빈 공간에는 작은 무대가 있으며 그곳을 '하늘 마당' 이라고 부른다. '하늘 마당' 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교내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골든벨 퀴즈 대회를 하

거나, 공연을 한다. 또한 경해여고의 또 다른 자랑인 소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경해여고의 대표 끼쟁이들은 마음껏 매력을 발산한다! 복도에서 공연을 보고 싶은 학생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쭉 내밀고 있기도 한다.



전국에 오직 3개뿐인 바디 페인팅 동아리!

바디 페인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는 흔치 않을 것이다. 심지어 전국에 3개뿐인데 그중 하나가 경해여고에 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경해여고의 바디 페인팅 동아리는 디자인 동아리인 클루리스와 모델 동아리인 아카테스로 나누어져 있다. 보통 모델 동아리라고 하면 독특하고 멋진 옷을 감각적으로 입고 관객들 앞에서 워킹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경해여고는 특별하다! 클루리스에서 디자인을 하여 아카테스 부원들에게 바디 페인팅을 한 후 퍼포먼스를 한다. 이 또한 경해여고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있지 않은가?



특집!! 우리 학교에만 없다(?)

앞에서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경해여고! 그런데 한 목소리로 뭔가 1% 부족하다고 하는데? 뭘까요?

H 학생(17) : 상상도 못했어... 진짜... '그게' 없을 줄이야.

K 학생(17) : 불편할 때도 있지만 어찌겠어요? (으쓱)

L 학생(17) : 물론 생겼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행사 때는 빌릴 수 있으니까 큰 불만은 없어요 ^^

없을 줄 상상도 못했고,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것' !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타 학교의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여러분의 학교에도 '그거' 가 없나요?

M 학생 : 아니요, '그게' 없는 학교도 있어요? 헐...

K 학생 : 당연히 '그거' 는 있어야 하지 않아요?

J 학생 : 그럼 경해여고는 체육 어디서 해요? 이 땀벌에 운동장?

진주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 우리밖에 없죠...?

그렇다. 우리 경해여고에는 체육관이 없다! 하지만 그런 불편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주는 여러 시설들이 있다. 물론 타 학교 학생들의 예상대로 보통 체육 수업은 운동장에서 한다. 하지만 경해여고만의 특별한 골프 수업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이 운동장 한쪽에 마련되어 있으며, 테니스장도 있다. 또한 중요한 행사인 축제나 체육대회는 경해여고 옆의 선명여고 체육관을 빌려 이용한다. 그러므로 그 부족한 1%는 채워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래도 대부분의 경해여고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체육관을 원할 듯 하다.



[취재/ 전규원(경해여고1)기자]

야자 후 교문 앞 풍경



새까만 물감을 엮지른 듯 캄캄하고 어두운 밤, 매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들의 학교다. 늦은 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는 밤까지 모든 교실에 전광등이 켜져 있다. 늦은 밤 매일같이 학교 입구에는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갈 부모님들의 자동차들이 줄지어 선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애뜻해 보이기도 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함도 있다. 또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넘어 홀로 쓸쓸히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순간 씩씩함도 느껴진다. 이제 곧 수능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운내 친구들!

FOCUS 렌즈

점심시간, 남고 운동장의 신기한 광경



4교시가 끝나는 12시 10분,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쳐나간다. 잠시뒤 남고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된다. 그들에게 점심은 뒷전,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를 잡고 축구를 하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운동장엔 많게는 10개 이상의 공이 운동장에 굴러 다닌다. 각 골대에는 항상 세 명 이상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다. 유니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공이 확연히 다른 것도 아니다. 혼잡한 운동장 사이로 공이 왔다 갔다 하며, 서로 헛갈리지도 않는지 각자 저마다의 공을 잘도 찾아간다. 사람도 공도 헛갈릴만 한데 신기할 노릇이다.

점심시간 운동장에는 다양한 그룹이 형성된다. 각자 그룹을 만들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축구를 하기 시작한다. 한명은 골키퍼를 맡고 골대를 하나만 사용하여 오직 그 골대에만 골을 넣는 축구를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 복잡한 운동장을 모두 이용하여 경기를 하는 그룹들도 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미리 반끼리 이야기를 해두고 경기를 계획해 놓는 그룹도 있다.

불타는 승부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공을 쫓아다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저 공 가는데로 자신한테 오면 차고 아니면 말고, 설령설령 축구를 즐기는 그룹도 있다. 한편, 축구에는 미련이 없는 학생들은 최대한 운동장 그룹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구석에서 원을 만들어 소위 '원바운드' , 줄여서 '원바' 를 시작한다. 또한 운동장 바깥쪽 농구 코트에는 열심히 농구를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족구 코트에서 족구를 하는 그룹도 있다. 혼한 한 남고의 점심시간은 이렇게 뛰어다니는 학생들로 운동장이 매우 혼잡하다.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질서가 있다. 아마도 여고에선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일 것이다.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남고생들이 조금은 안쓰럽다.

[필통편집국]

당신의 분리수거, 제 점수는요?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 오늘부터 제대로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약 70년)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55톤에 달한다. 쓰레기 종량제(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한 이후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재활용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분리수거란 폐기물의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 그 재질마다 폐기물을 분류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에 남치는 쓰레기, 현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다시 한번 곰씹어보자.

우리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1970년 후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198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분리수거가 의무화되고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어 현재 일부 규정을 간단화,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분리수거도 익숙하고 어디서나 분리수거장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리수거의 방법을 알고 올바른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재활용 쓰

레기 처리 과정에서 1차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쓰레기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됐지만 선별장에서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고 소각·매립 처리되는 쓰레기, 즉 '잔재물'이 너무 많다. 음식물에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다 먹은 요거트 통의 경우 위의 뚜껑 껍질을 떼고 통은 물로 행군 후 버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먹은 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잘못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광고도 한다. 또 학교에서는 잘못된 분리수거로 인한 지구오염에 대해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영상교육을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우리의 습관이 지구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스스로 경

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부터라도 정확한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하려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이젠 분리수거 제대로 해야 할 때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이유는 자원 절약에 있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각 가정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만 실천한다면 국가적으로는 큰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활 속

쓰레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종류별 올바른 배출법이 헷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꾸준한 실천으로 습관화한다면 주변을 깨끗이 함은 물론 자원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줘 환경문제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 구분 주의해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은 '동물들이 사료로 먹을 수 있는 것' 인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소·돼지·닭 같은 동물들이 먹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영양과 수분이 없는 것(양파·옥수수의 껍질, 파·미늘의 뿌리, 커피·녹차의 찌꺼기 등), 딱딱하거나 뾰족하

여 목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견과류 껍데기, 각종 뼈), 포화지방산이 많아 섭취 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동물 내장·비계), 염분이 많은 장류(된장·고추장), 독성이 있는 것(해파리의 씨) 등은 음식물쓰레기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박이나 참외처럼 연한 과일의 씨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도 무방하며, 사과와 같은 연한 과일 껍질은 영양이 풍부해 오히려 사료의 좋은 재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닐·플라스틱, 이물질 제거 후 세척해야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경우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한다. 해당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다.

종이팩이나 페트병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해 배출한다. 특히 흡연자들은 페트병을 재떨이 용도로 활용하고 궂초 등 이물질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물질이 있다면 분리수거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종이는 물기 없이, 유리병은 재질별 분리

신문지나 전단지·노트·서적 등 종이류는 물에 젖지 않은 상태로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 버려야 한다. 단 비닐 코팅된 전단지는 함께 버려서는 안 되며 코팅된 책표지나 노트의 스프링은 제거해야 한다.

음료수 등을 담은 유리병은 재질이 다른 뚜껑을 제거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하면 된다. 일반 유리잔이나 맥주잔도 같은 방식으로 배출하면 되지만 냄비 등으로 쓰이는 가스레인지용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와 함께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마대(불연물질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버려야 한다.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불가해 신문지로 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부탄가스는 비우고, 우산은 뼈대 분리 후

철이나 알루미늄 재질의 캔류 역시 내용물을 비우고 재질이 다른 뚜껑과 분리해 배출한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는 반드시 송곳 등으로 노즐을 눌러 잔여가스를 제거한 후 캔류로 배출해야 한다.

공구류·철사·못 등 고철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고 고철류로 분류해야 하며 우산은 가급적 뼈대를 분리한 후 뼈대는 고철로, 나머지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스티로폼은 깨끗한 상태로 내놓아야

스티로폼은 테이프 등을 제거해야 하고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씻어 깨끗한 상태로 내놓아야 한다. 스티로폼이 재활용 대상이기는 해도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컵라면 용기의 경우 씻어낸 후에도 라면국물이 배어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그 외 폐기 방법이 특수한 품목

발생 빈도가 낮은 쓰레기들은 그 처리 방법도 익숙하지 않지만 저마다 간편한 분리 배출 방법이 있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마다 배치된 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 처리하고 튀김 요리 등을 하고 남은 폐식용유는 음식물 등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모아뒀다가 동주민센터와 같은 지자체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분리하세요~

동물사료로 쓸 수 있나 없나가 포인트!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벼의 껍질)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기타	계란 등의 "알 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병뚜껑,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은 제거해주세요
물기는 꼭

분류기준은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아리탐방] 진주고등학교 사회과학동아리 S.N.S

정치, 사회 이슈들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 법조계와 정계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였다

최저임금, 남북관계, 난민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요즘! 자신의 견해를 친구들과 나누어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고등학교 사회과학 동아리 S.N.S의 부원들인데요, 우리 S.N.S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S.N.S부장 오준섭〉

Q.동아리를 소개 해 주세요!

A.안녕하세요! 저는 S.N.S 부장 오준섭입니다. 동아리명은 S.N.S.(Social and Science)로 사회과학을 다루는 동아리예요. 사회과학 중에서도 법, 정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3학년 3명, 2학년 10명, 1학년 6명으로 이루어진 5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진고 최고 명문 동아리랍니다.

Q.평소에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A.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정말 다양해요! 저희 S.N.S가 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법과 정치 분야의 사회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이예요. (가끔 주제가 떨어질 때는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부먹이나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토론을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생각들을 부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활동으로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법과 정치 과목의 탐구 및 탐구 내용 발표, 모의 UN, 견학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연말에 저희가 한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S.N.S 신문을 만들어 진주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Q.대외 활동도 하나요?

A.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같은 사회적 의미 있는 날이라면 교문 캠페인을 주최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방학을 이용해 동명고, 진주여고, 중앙고, 경해여고, 명신고 등의 동아리와 연합하여 진주MUN(모의UN) 등을 주최하였고, 올해에는 다른 진주고 동아리와 모의 UN을 진행하는 등의 대외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Q.방금 말씀하신 활동들 중에 모의 UN이란 무엇인가요?

A.모의 유엔(Model United Nations)은 유엔의 각국 대사 역할을 맡아 토론과 협상, 결의안 작성 등을 통해 협상 및 발표 능력을 배양하는 활동입니다. 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실시하고요. 실제 유엔의 산하 기관인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Security Council) 등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분과별로



〈동아리 시간에 모의 U.N 활동을 하는 모습〉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맞아 교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진행하며, 이들 위원회는 각각 고유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활동으로 쉽게 말해 UN 회의를 가상으로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Q.이번 여름방학에 서울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A.네, 맞아요!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동아

리 부원들과 함께 서울 견학을 다녀왔어요. 서울의 대검찰청, 국회 등 국가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부원들의 진로 관심사와 관련된 체험을 직접 해보고 견문을 넓히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진주고등학교 선배님이시자 진주시 국회의원이신 박대출 의원님과 만남은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

**“S.N.S. 동아리 부원은 모두
O데리아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구요?
S.N.S.이니깐요!”**

Q.처음에 S.N.S로 들어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아리 부원들이 S.N.S로 들어오는 이유는 법조계나 정계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의 진로 분야 외에도 토론활동을 하고 싶어 들어온 친구나, 사회 시사에 관심이 많아 들어온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 정도만 있어도, 그 관심을 꿈이나 흥미로 바꿔드리는 우리 명문 S.N.S의 매력에 가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Q.S.N.S의 장점을 꼽자면?

A.단합력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 견학 갈 때 버스터미널에 새벽 5시까지 모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각생 한 명 없이 모두 제 시간에 와주어 차질 없이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정

Q.사회과학에 관심을 두면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먼저 사회과학에 관심을 두면 상식이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견문이 넓어지고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Q.올해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A.아쉽게도 올해는 외부에서의 부스운동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밝기 전에 청소년 어울림 한미당 등에서 부스운동을 해보는 것이 올해 마지막 목표입니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O데리아 안 먹습니다. 저희 동아리 부원들도 모두 O데리아 안 먹어요. 참, 저희 동아리 차장을 소개하고 싶네요. 성은 강 이름은 윤호이며, 부장인 저를 많이 도와(?) 줍니다. 이 친구가 음식 안 가리기로 유명한데, 역시 O데리아는 안 먹어요. 항상 모범이 되어주는 2학년, 그에 따라 열정적으로 화답하는 1학년,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선생님까지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S.N.S 서울 견학에서 대검찰청을 방문하였다〉



◀〈S.N.S 서울 견학에서 진주시 국회의원 박대출 의원과 함께〉

오작동으로 아무 때나 울리는 화재경보기

학교에 울리는 오작동 사이렌, 실제상황이면 어쩌나!

뉴스에서 큰 사고를 접할 때면 어김없이 뒤따르는 말이 있다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고 정해진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평상시에 '안전불감증'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까?

그 실제 사례를 어처구니없게도 학교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들이라면 수업 중 갑자기 위급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화재경보기 사이렌 소리다. 그러나 학교에서 경보기 소리를 듣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본적은 아마도 거의 한 번도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학교가 달라도 학생 대부분이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L 학생: 수업 중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

가 들리는데 선생님께선 복도를 내다 보거나 상황파악을 하기는커녕 괜찮으니 앉으라고만 하셨습니다.

*J 학생: 처음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땐 누가 장난을 쳤나 보다 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불이 났나? 하고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K 학생: 화재경보기에서 사이렌 소리는 자주 들리는데 막상 우리는 대피를 하지 않으니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불이 나지 않았는데 사이렌이 툭하면 울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따른 안전한 대처가 또 한 더 큰 문제가 된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실제상황처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된다. 대다수 선생님들

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학생들 역시 경보기에 민감해 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호들갑이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다.

그렇다면 화재경보기는 어쩌서 자꾸만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경보기나 무더운 여름철 높은 온도·습기·먼지 등이 경보기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기적 점검과 꼼꼼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재경보기는 감지기에서 연기 또는 화재가 감지되면 발신기에서 수신기로 그 감지를 보내게 되고 그것을 수신 받은 수신기가 표시기(기록하여 음향 경보기가 움직이는 원리인데 감지기의 설정치가 노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여 오작동을 일으킨다.

결국 지금 학교에선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을 반복해서 교육시키



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꼴이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빈번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말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최신 경보기 설치의 물론, 만성이 되어버린 학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들 모두 그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취재/ 양영진(대아고2)기자]

교실 안 냉방전쟁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추우면 입던가? VS 더우면 벗으면 되잖아?

"더워요.", "추워요.", "기사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대중교통 수단은 매년 여름 냉방전쟁으로 운전기사와 승객, 승무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선사한다. 기록적인 폭염 속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의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도 전쟁 아닌 전쟁이 펼쳐진다. 지난여름 폭염속에서 각 학교 교실에선 어김없이 에어컨 사용에 따른 냉방전쟁이 재발 했다. 교실이라는 큰 공간을 냉방하다보니 모든 학생들이 만족하기는 힘들다. 냉방 온도에 대한 학생들의 체질적인 편차도 있을 것이고 에어컨 바람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춥다' 외치고 어떤 학생들은 '덥다'고 호소를 한다.

대부분의 교실 에어컨은 주로 교실 가운데 천장 위에 한 대가 설치 되어있다. 단 한 대의 에어컨이 가운데 있다 보니 에어컨과 가까운

자리의 학생은 춥고 에어컨과 먼 자리의 학생은 더워 서로 자신의 불만을 표하는 이른바 교실에서의 '냉방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박수연(여, 18세, 에어컨과 가까운 자리) 학생은 "너무 추워서 담요는 필수죠. 하지만 에어컨과 먼 자리의 학생들은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끄자는 말을 못 꺼내요." 라는 불만 섞인 얘기를 한다. 반면 김석철(남, 18세, 에어컨과 먼 자리) 학생은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복도만큼 더워요. 여름이면 덥다는 사람 말을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렇듯 교실 밖은 폭염주의보로 뜨거운데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에어컨을 끄니 마니 팽팽한 의견 대립을 펼치는 모습이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결국 냉방전쟁 중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덜컥, 개도 안 걸린다던 여름 감기에

걸려버리고 만다. 대부분 냉방병이다. 냉방병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심하여 인체가 잘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벼운 감기, 몸살, 컨디션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선 추위를 느끼는 학생들은 겹옷을 챙겨 입고 더위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얇은 티셔츠 한 장만 걸쳐 입고 있는 기이한 광경까지 연출된다. 황당하게도 이런 학생들의 교육책은 학교의 교칙에 어긋난다며 허락되지 못한다. 학생들의 불만과 스트레스는 높아만 간다.

이제 폭염은 물러가고 냉방전쟁도 그 끝을 고할 것이다. 반복되는 냉방전쟁을 개선 할 방법은 없을까? 학생들의 불편, 건강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가법지 않다. 또한 학생들의 면학분 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실의 냉방전쟁이 반복되는 것은 한 두 달여 짧은 폭염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



문인지 모른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에어컨 운용을 개선하던지, 교칙을 바꿔 학생들에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던지, 교실내 자유로운 자리 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여름이 넘기고 이제 머지않아 또 겨울이 올 것이다. 냉방전쟁만큼이나 겨울 난방전쟁이 훗날 속 논란의 교실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취재/ 하수진(경상사대부고2)기자]

당신의 화장품은 안전한가요?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은 전혀 다르다

화장은 엄연한 청소년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여자 중고생 75%가량이 색조 화장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 화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청소년 화장을 개성이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피부층이 얇은 청소년들에게 아직 화장은 이르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 책상위에 펴놓고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은 이젠 학교에서 흔히 광경이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화장법을 공유하거나 상대방에게 화장을 해주며 노는 것은 또 하나의 일상이다. 요즘 10대들은 화장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어떤 화장품을 고르고 또 자신에게 맞는 화장법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화장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이 있다. 바로 화장품의 유통기한이다. 청소년 시기의 화장품 사용은 특히나 신경을 기울여야 한

다. 흔히 착각할 수 있지만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은 엄연히 다르다.

유통기한의 사전적 의미는 화장품이 제조된 후 제품의 변질 없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하고 사용기한은 개봉한 순간부터 제품의 변질 없이 안전하게 제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장품은 유통기한보다는 사용기한이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기초화장품의 유통기한은 대략 30개월로 개봉 후 사용기한은 12개월 이내이다. 베이스 제품의 경우 36개월까지 유통이 가능하고 개봉 후 18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립 메이크업 제품의 유통기한은 3년이며 개봉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이나 색이 변했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다. 또한 구매했던 화장품 용기의 '6M', '24M'표시는 개봉 후 각각 6개월, 24개월 이내로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국내와 해외의 표기 방법이 다르다. 국내 제품의 경우 '20010219까지'와 같이 표기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다. 하지만 해외 화장품은 MFG 또는 EXP, BBE 등으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MFG와 MFD는 제조 일자를 뜻하는 것으로 MFD 08/18이면 2018년 8월에 제조된 것을 알 수 있고 EXP는 사용 기한으로 EXP : 02/2018이라고 되어있다면 2018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BBE 혹은 BB는 사용 권장 기한으로 제품이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BBE 20200219이면 2020년 2월 19일 이내로 사용하기를 권한다는 뜻이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취재/ 강아영(삼현여고2)기자]



즉,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개봉한 시점도 매우 중요!

종류	개봉 후 사용기간
스킨, 로션	1년
에센스	6개월
크림	제조일로부터 2년
아이크림	1년
자외선차단제	6개월 ~ 1년
파운데이션	1년 6개월
립글로스	6개월
마스카라	3개월

헌 옷 기부로 봉사활동 점수까지 받자

의류수거함은 불우이웃돕기 아닌 개인 사업이다

골목 곳곳에 '의류 수거함'이라 적힌 녹색 박스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한번쯤 헌 옷을 모아 그 수거함에 넣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거함에 적힌 대로 그 헌 옷들이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주시나 봉사단체에서 운영할 것 같이 보이는 의류 수거함은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사유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수거함에 적힌 봉사단체 이름은 수거업체가 명의를 빌린 것뿐이며 '기부'가 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철 1Kg이 300원선인데 비해 옷의 경우 600원 정도여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한 개인 사업자들이 곳곳에 수거함을 설치한 것이다.

의류 수거함에 옷을 넣는 순간 그 옷의 소유권은 의류 수거함을 설치한 사업자가 가지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2016년 인천에서 영하의 추위를 견디다 못한 몽골 유학생이 의류 수거함에서 옷 3벌을 꺼냈다가 특수절도 혐의

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런 현실이 씁쓸함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의류 수거함들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거나, 수거함 주위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너무 많은 수거함 또한 문제다. 진주시 동진로 102번 길의 경우 100미터 거리에 4개의 의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다.

의류 수거함에 적힌 '사단법인 진주시 시각장애인협회'로 기자가 직접 확인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애인 단체나 보훈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명의를 빌려 준 것인지, 실제로 기부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진주시에서는 의류 수거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불법적

인 부분에 대한 단속 또한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인 가정엔 헌옷이 쌓이기 마련이다. 헌 옷을 의미있게 제대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ngo 단체인 '옷캔'을 통해 헌 옷을 기부하는 방법이다. 옷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헌옷을 보내게 되면 기부뿐 아니라 봉사활동 점수도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겐 더없이 좋은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옷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옷기부 + 봉사점수 참여 안내"를 클릭하면 옷기부하는 방법과 봉사점수 받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헌 옷 들고 골목의 돈벌이용 철박스를 찾는 대신 옷캔에서 기부와 봉사활동 점수를 함께 얻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

[취재/ 김동민(동명고2)기자]



빚쟁이 대학생... 대학이 장사하는 나라

등록금 1000만원, 기숙사 월 50만원, 지켜만 볼 건가?

학생들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 물론 대부분 목표는 대학이다. 그런데 십 수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 합격 소식은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온전히 기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비싼 대학 등록금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재력은 자녀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인데, 가정환경이 교육기회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교육 현실은 학생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20~30대 대졸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 대졸자&대학생 학비관련 빚 현황>을 살펴보면, 43.5%가 학비 때문에 빚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학비를 위해 빚을 진 경우 상당수는 졸업 후에도 한동안 빚을 상환하기 위해 매달려야 한다.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빚이 없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빚을

졌다고 답한 응답자의 51.4%가 '일부는 갚았지만 여전히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다'고 답했으며,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2.4%로 적지 않았다.

몇몇 학생들에게 이런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 보았다.

A씨(21세, 연세대 재학중) :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 한학기만 하고 휴학해 알바를 통해 등록금을 모으고 있어요. 가정환경이 비교적 좋지 못해 장학금이 지급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B씨(19세) : 원래 더 높은 대학의 원서를 쓰고 싶지만, 부모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대학도 무상교육이 보편화돼 있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대학교육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에서도 대학교육 전면 무상화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왜 반값등록금 마저도 선거때 반짝 구호로만 그치는 것일까?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 기숙사조차도 월 50~6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알바를 하거나 빚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왜 우리는 대학을 유일한 목표로 밤낮없이 입시공부에 매달려야 하는지 누가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교육은 국가의 의무라고 배웠다. 모두가 공평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고 이젠 무상급식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기관인지 돈벌이하는 주식회사인지 헷갈린다. 교육은 장삿거리가 아니다. 오늘도 야근자율학습을 하고 새벽까지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꿈이 고작 그런 장삿속 돈벌이에 이용된다면 그 분노를 다 어찌 할 건가? 대학교육 무상까진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현실은 가장 시급히 막아야 할 것이다.

[취재/ 임수종(진주고2)기자]

진주시 학교 등굣길은 안전 불감증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교를 한다. 하지만 학교에 다다를 때면 시끄러운 경적소리와 함께 많은 차량이 비좁은 길을 들어오고 나간다. 이와 같이 서로 갈 길이 바쁜 차량 때문에 등굣길이 순탄치 않다. 학생들은 위험한 차량 사이를 꼭 헤쳐나가야 하며 큰 사고가 날 뻔한 경험들도 맞이하게 된다. 학생들의 등굣길이 좀 더 안전해 질 순 없을까?

진주 J고등학교 근처 횡단보도. 이곳은 매일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건너가는 길이다. 그러나 커브길과 맞닿아 있음에도 신호등이 없어, 학생들은 늘 위험을 감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 외에도 진주시내에는 학교 근처임에도 신호등이 없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될 뿐더러, 도로교통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수 있다.

진주 D중,고등학교의 등굣길. 학교 후문쪽은 비가 오는 날이면 좁은 외길이 학생들을 데려

다 주는 부모들의 승용차와 등교하는 학생들로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다. 가끔씩 접촉사고와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언덕길이 많은 진주 J여고의 등굣길도 아침마다 전쟁이다. 지각을 면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자녀를 태운 학부모님들의 차량이 지나 다닌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오는 학생들은 차량을 피하기 바쁘고 차들 또한 학생들을 피하기 바쁘다. 아찔한 장면도 가끔 발생하지만 늘 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다.

또 다른 진주의 D중,고등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등굣길은 말 그대로 위험천만이다.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들, 인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등교를 위해 몰려드는 차와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학생들은 아찔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등굣길이 늘 위험하다. 먼저,

엄연한 스쿨존에 해당하지만 신호등조차 없는 횡단보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스쿨존이란 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300~500m 이내의 도로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차량의 서행과 신호기,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 있는 도로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교육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호등이 있어도 숫자 신호등이 아니라면, 더 안전한 신호등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도로 위에서 언제나 교통 약자에 속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도 방치하고 내 버려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큰 사고가 터져야 들여다보고 바로 잡기엔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가슴 아픈 안전사고들을 많이 겪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되길 바란다.

[취재/ 정해밀(진주여고2)기자]



[선배가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사학과를 찾아서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 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죠"



〈사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3학년 이태현씨〉

問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태현입니다. 아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지금 24살입니다^^

問 : 사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제가 고등학교 때 메가스터디라는 인강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더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하

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른 분들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흥미도 있는 과를 찾다 보니 사학과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問 : 사학과는 무엇을 주로 배우는 학과인가요?

— 사학과는 인문대학에 속해 있는 분야로서 새로운 것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도 가지지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 전공수업 때 충격이 컸거든요, 교수님께서 ‘과연 세종대왕은 위인인가?’, ‘훈민정음은 정말 백성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망치로 뿔뿔을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품지 않았던 것에 새로운 방법과 시각으로 접근해나가는 그런 학문이 사학인 것 같아요.

問 :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나요?

— 학예연구사, 기록물 관리사, 고고학자가 되기도 하구요, 교직이수하거나 교직이수를 못하더라도 교육



대학원에 진학해서 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물관과 관련한 직업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問 : 사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사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입학 후에 1년간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었을 경우에 교직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순이네요.

問 : 경상대학교 사학과 입시 것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진학할 당시에는 수시 등급은 평균적으로 3.2 정도였었고 정시는 3.8~4.0 이었던 것 같아요,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면접 경쟁률은 27명 중에 9명이 들어왔으니까 3:1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問 : 사학과와 경우에는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 매년 다른데 저희 때는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이 6:4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5가 되었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問 : 가장 기억에 남은 대학생들이 있으시다면?

— 일단 사학과는 매년 답사를 가거든요, 답사라 함은 오리엔테이션도 아니고 MT도 아니고 그냥 학술적인 부분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화유산을 보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문화유산을 통해 시대를 추측해 보고 역사적 논쟁도 하면서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또 저녁에는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밌게 놀

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답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학과만의 특별함이기도 하죠.

問 : 사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팁이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수시전형은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면접은 심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곳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든 마음이 가면 달리면 되는 것 아닐까요, 사학과는 충분히 매력 있는 과랍니다.



〈사학과의 답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다〉



〈지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거의 모든 사학과가 함께했다〉



〈사학과 학생들도 운동도 잘하고 어느과보다 단합이 잘된다고...〉

사학과의 모든 것



독립운동가 단체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상고사」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 현재 ·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학과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배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를 키웁니다. 중 · 고등학교 때 국사 및 세계사 등 역사 과목을 즐겁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사학과에 입학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라 봐야겠죠.

[학과소개]

사학과는 시대별로 동양과 서양의 고대

사 부터 현대사까지 포괄적인 역사학을 심도있게 배우며 역사학을 배움으로 이해한 역사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사회의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건전한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회와 개개인을 만들기 위해 역사발전과 우리가 이끌어갈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학과입니다.

[수업내용]

사학과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은 정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과목들 중 주된 과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개론] — 역사 그리고 역사학을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으로서 역사학의 여러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한국사] —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부터의 기록들과 문화의 형성 등을 다룬 한국 고대사부터 시작하여 한국사학, 한국 중세사, 한국 근세사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등 전체적인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동양사] — 동양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입문과 이해,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동양사학부터 시작하여 동양고대사, 동

양중세사, 동양근대사 그리고 동양현대사 등의 과목들을 통해 동양사와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역사적 격변과 변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서양사] — 서양 중세사, 서양 근세사, 서양 현대사, 고고학, 중국 사학사, 인도사, 일본사

그리고 독일문화사와 미국문화사 등 각 나라의 역사를 상세히 배우는 여러가지 사학 과목들 또한 존재합니다.

[적성 및 흥미]

역사를 알아보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 관심이 많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사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삼아보면 좋겠습니. 또, 인간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며, 인류 사회의 발달 과정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역사는 인문, 사회과학에서 가장 종합적인 학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양어나 동양사를 공부하다보면 일어나 한문, 영어, 독어 등 외국어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과의 성격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 호기심과 여러 민족에 대한 관

심, 인내력, 어학능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



[졸업후 진로]

그럼 사학과는 졸업 후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요?

사학과의 졸업생들은 주로 박물관이나 지역문화관, 문화재청, 교사 그리고 해외문화교류 관련 기업체나 언론사 등 여러가지 역사와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여 사회생활에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꿈 위에 언급한 역사와 관련된 직업들에 포함된다면 사학과와 진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사학자로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역사적 안목과 식견을 토대로 관계, 언론, 무역, 외교 등 실사회로 진출하는 길이 광범위하게 열려 있습니다.

[학과 및 전공설치 대학]

동국대, 군산대, 동덕여대(사회과학대학), 부산대, 서강대(인문계), 아주대(인문학

부), 연세대(인문계열), 인하대(인문학부), 경북대, 경희대(서울), 목원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전남대, 중앙대(서울) 강릉대(인문대학), 강원대(사학 · 철학과군), 건국대(서울:인문학부), 경기대(수원:인문학부), 경산대(역사지리학과), 경상대(인문학부), 경성대(인문학부), 계명대(인문학부), 공주대(역사 · 지리학과군), 관동대(인문학부), 단국대(서울:인문학부), 대구가톨릭대(인문학부), 대전대(인문과학계열), 덕성여대(인문학부), 동국대(인문학부), 동아대(인문학부), 동의대(인문학부), 명지대(서울), 부경대(국문 · 역사학과군), 상명대(서울:사회과학부), 성균관대(인문과학계열+자유전공), 숙명여대(인문학부), 순천대(인문학부), 숭실대(역사 · 철학과군), 신라대(인문학과학군), 안동대(국학 · 역사계열), 영남대(인문학부), 우석대(인문학부), 이화여대(인문 · 외국어문학부), 전북대(인문학부), 제주대(인문 · 사회과학과학군), 조선대(역사 · 철학부), 창원대(국어문 · 사학군), 청주대(인문학부), 충북대(인문학계열), 충북대(인문학과학군), 한국외대(용인:인문학부), 한남대(역사 · 철학부), 한림대(인문학부), 한양대(서울:인문과학부), 호남대(인문학부)

[JOB을 잡아라] 컴퓨터프로그래머 김준환씨를 만나다

다양한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4차산업혁명시대 지금 도전하세요. Now!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이름은 김준환이고 85년생이고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라는 웹프로그래머를 유지보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느 종류의 직종에서 일하십니까?
A. 전에는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 개발자였는데 전향해서 웹 프로그래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일하는지 궁금하면 홈택스 검색~

Q. 프로그래머는 왠지 특정 과목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A. 딱히 그렇지 않은데 영어는 잘하면 도움이 됩니다.(의외로 수학은 잘 못 해도 돼요.)

Q. 청소년이 관심이 많은 게임 프로그래머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가요?
A. 친구들이 게임 프로그래머가 몇 명 있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 다들 게임을 좋아했었어요.ㅎ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좀 더 좋겠네요.

‘에픽세븐’ 이라고 친구가 만든 게임이 곧 오픈한다는데 많은 이용 바라요~

Q. 컴퓨터프로그래머는 어떤 성향의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일까요?

A. 신중하고 꼼꼼한 학생에게 강추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꼼꼼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Q. 자신이 참여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A.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의 홈택스라는 차세대개발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개발인력 400명에 3년이라는 기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밤도 많이 세고 많은 사람이 포기도 했었지만, 성공 후에는 그만큼 보람도 가장 컸습니다.

Q. 해커를 없앨 수 있나요? 필요악인가요?

A. 해커 자체는 도둑이라고 보면 돼요. 경찰이 있어도 도둑이 없어지지 않듯이 해커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에 따라 프로그램에는 보안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ㅎ

Q. 요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인기 있는 기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요새 한참 화젯거리였던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도 있고, 개인저장 공간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정말 많네요(전 잘 몰라요^^)

Q. 취업이나 창업에서 대학 간판도 꼭 중요한가요?

A. 네~네~ 첫 회사를 구할 때는

**"중학교 때부터 가졌던 컴퓨터에 대한 흥미가
직업으로 이어졌어요.
좋아하는 일은 절대 지나치면 안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 간판이나 성적이 판단기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좋은 직장도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Q. 월급이나 연봉 수준은?

A. 회사나 능력,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프로그래머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다른 직종보다 안정적이고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대우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IT는 특성상 야근이나 스트레스가 많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기업마다 틀리지만~~ 정부가 챙겨줘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 믿어요.

Q. 요즘에는 어떤 종류의 컴퓨터프로그래머가 인기 있는지?

A. 지금은 모바일이나 웹 프로그래밍이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추천

로 가지고 공부하면 될 것 같네요. 모든 것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책 추천은 네이버 지식인 이..ㅎ

Q. 본인이 걸어온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길?

A. 경상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나왔고 두 곳의 IT 회사를 거쳐 지금은 프리랜서로 국세청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자격증을 따면서 흥미를 느꼈고 지금은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걸 보면 적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10년, 20년 뒤에도 즐겁게 일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컴퓨터프로그래머 김준환씨는 서울에서 홈택스를 유지보수하고 있다〉

프로그래머 전망과 현실. 성공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IT분야에서 가장 인력수요가 많고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 프로그래머. 컴퓨터 관련 공부를 전공한 많은 대학생과 어린 중고등학생까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그램, 응용SW 등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에 따라 프로그래머의 종류가 나뉘고 하는 일과 준비과정까지 달라지지만 모든 프로그래머가 똑같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 프로그래머 사이에서도 이런 대우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흔히 프로그래머에게 안 좋은 말이지만 "코딩기계, 코딩노예" 라는 별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준비가 덜 된 프로그래머에게 코딩기계나 코딩노예와 같은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 아픈 말이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줄 알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코딩 실무를 능숙하게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C언어부터 알고리즘, C++, 자바, JSP, Spring 프레임워크, 파이썬 등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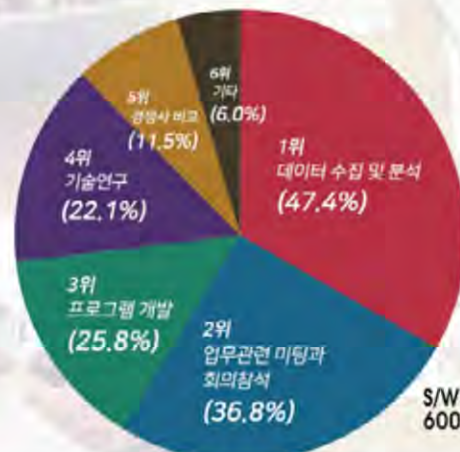
그러나 코딩기계, 코딩노예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 줄 알았을 때 듣기 딱 좋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개발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발환경과 네트워크의 연결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코딩만 하는 업무는 시키는 일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눅스와 윈도우 같은 서버, 운영체제 공부를 통해 컴퓨터 내부의 공간, 개발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네트워크 연결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하겠죠.

그런 기본적인 컴퓨터 인프라 구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대우를 받고 성공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까요? IT분야는 전문 기술직으로 일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능력이 높다면 누구나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전망과 현실은 공부하는 자기 자신이 충분히 바뀌나갈 수 있죠. 그런데 한 우물만 깊게 판 사람보다 여러가지 일을 폭넓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인 프로그래머가 되실 건가요? 스스로의 생각을 구현시키는 능동적인 프로그래머가 되실 건가요?

프로그래머 종류 중에 가장 선호하는 쪽 분야는 ?



S/W개발자에게 꼭 필요한 직무역량은 ?



[글로벌미팅] 인도유학생 답을 만나다

인도에는 지역 간 소통이 어려워 지역말을 배우는 학원이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한국 거주 2년차 경상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재학중인 딘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죄송해요.(딘씨가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워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Q.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저는 한국에 공부를 하러 왔



전통의상을 입고

어요. 한국은 교육 여건도 좋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굳이 제가 진주에 온 이유는 다른 지역은 사람도 많고 붐비고 정신없지만 진주는 사람도 적당히 있고... 진주가 좋아서 오게 되었어요. 전 진주 너무너무 좋아요^^

Q. 인도는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인가요?
-인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심하지는 않아요. 여성, 남성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죠. 정부도 여성의 삶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은 좋은 운동인거 같아요. 지금까지 사회는 남성들에 의해 통치되어 왔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일을 하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Q. 교육적인 면에서 한국 청소년과 인도 청소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크게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한국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듯이 인도 청소년들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합니다.

Q. 인도는 학원이나 야자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인도는 학교를 보통 오후 4시에 마쳐요. 그 이후로는 집에 가서 남은 공부를 하고 학교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에는 언어에 관련된 학원들이 많아요. 학원은 3종류가 있어요. 힌디어, 영어,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에요. 인도는 지역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써서 지역마다 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말을 배우는 학원이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Q. 그렇다면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은 한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해요. 지리, 역사, 생명 등등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답니다. 면접을 볼 때 본인의 전공도 물어보지만 또 모든 과목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Q. 인도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처럼 인도는 학교 교칙이 이

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규제가 없다면 이성교제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죠. 본인의 자유니까요.

Q.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 인도에 대해 많은 소개를 한 것 같아 기뻐요.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재밌었고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Hot한 인도소식!

인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촛불혁명이 실려 있다

평화적인 집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한국의 '촛불혁명'이 인도 고교생 수백만 명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수록됐다. 인도 연방 표준 교과서를 만드는 국가교육연구위원회(NCERT)에 따르면 올해 새로 발행한 11학년(고교 2학년) 세계사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이끈 2016년 촛불 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등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빛지고 있지만, 한국의 공화주의를 고양한 것은 시민의 높아진 정치의식"이라고 분석했다. 교과서는 '근대화의 길'을 주제로 한 11과에서 조선 시대 말부터 한국의 정치·경제적 근대화 과정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초점을 맞춰 6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서술했다.

또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국의 경제성장이 민주화에 기여했는지 등을 연습문제로 제시했다. 10학년 역사 교과서에는 인쇄술의 발달을 설명하며 팔만대장경, 직지 등 한국의 인쇄 기술 관련 내용을 추가했고 12학년 정치학 교과서에도 한국 관련 설명을 보강했다. NCERT는 이들 교과서는 이미 각급 학교에 보급돼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번 학기 수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내 3만여 개 초·중·고교가 NCERT의 표준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년별로는 수백만 명, 전체적으로는 1억 명에 이르는 학생이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셈이다. 인도 주 정부 산하 기관이나 민간에서 만드는 교과서들도 NCERT의 표준교과서를 참고하기에 이번 개정은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궁금해?

인도의 교육제도 뭐가 달라?



인도의 교육과정은 한국과 연 수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인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인도교육위원회에서 설정한 15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3년의 과정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다. 만 6세부터 입학이 가능한 인도의 초등학교, 5년동안 진행되는 초등과정은 거의 모든 주에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10학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위해 10학년까지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보내주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취학률이 남성들보다 낮고 가난한 집안의 경우 여성의 배움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2년 과정을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 중이다.

10학년까지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끝날 때 졸업인증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야만 11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인도에서 Junior College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11~12학년 과정은 대학공부를 위한 기초 다지기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공대, 의대, 상경대로 진로가 나뉜다.

10학년때까지는 다양한 과목을 배웠다면 11학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몇 과목만 선택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만을 선택하여 공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대의 경우

수학, 물리, 화학, 제2외국어, 영어, 상경대는 무역, 경제, 역사, 제2외국어, 영어를 배운다. 이런식으로 5과목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흥미있는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한국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공통된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인도는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분류로 나뉘면 CBSE(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 ICSE(Indian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이다. CBSE는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국가언어인 힌디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한다. ICSE는 CBSE제도와 영국식 시스템(GCSE)이 합쳐진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ICSE는 대학 1학년 수준과 비슷하여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교육제도를 채택한 학교에 가게 된다. 또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는 제도는 외국대학 입학 시 필요한 국제대학 입학자격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인도의 국제학교들은 이 학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의 대학은 3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모두 유상교육이다. 대부분의 대학교육은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12학년에서 받은 시험 결과로 입학을 하게 된다. 대학에서 일반학과의 경우 3년, 전문학위인 의대의 경우 4년 반이며 법대의 경우 5~6년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인도에 가면 '방탄'은 몰라도 '쿤리'는 안다

"카바디! 카바디! 카바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바디 경기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선 이 말이 자주 들린다. '숨을 참는다'는 뜻의 힌두어, 카바디는 인도의 전통스포츠다. 한국에선 생소한 이색 스포츠.



인도 진출 당시 300만원이었는데 지난 시즌엔 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3년 새 40배가량 가치를 높여 인도 프로리그 전체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인도에서 '쿤 리(Kun Le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는 가는 곳마다 스타 대접을 받는다. 인도에선 BTS(방탄소년단)는 몰라도 쿤 리는 다 알 정도다. 이장군은 인도 한류의 원조다.

그런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카바디 중주국 인도의 쿤대를 꺾었고 결승까지 진출했다. 한국 카바디를 이끄는 간판스타는 이장군(26·빙갈 워리어스)이다.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바디 중주국 인도에서 이장군은 수퍼스타다. 카바디에 입문하지 3년 만인 2014년 인도 프로리그에 진출해 현재 빙갈 워리어스에서 주축 공격수로 뛰고 있다. 그의 연봉은



필통 우체국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 영미 패밀리

안녕! 영미 대표 싸가지 민준이야... 하하~ 막상 여기다가 편지 쓰려니 쑥스럽네. ㅋㅋㅋ 벌써 내가 학원에 들어온 지 거의 2년 정도 되는데 좀 더 일찍 친해지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워... ㅠ ㅠ 좀 더 일찍 친해졌으면 더 좋은 추억 많았을텐데 아쉽다... 그래도 짝꿍이지만 모두들 덕분에 좋은 추억 많이 쌓았고 가장 즐거운 한 해였던 것 같아. ㅋㅋㅋ 이제 3학년 누나들은 수시, 정시 앞두고 힘들고 지칠텐데 조금만 더 힘내고 노력해서 다들 원하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ㅋㅋㅋ 그리고 2학년 친구들 항상 반겨주고 잘 대해주서 고맙고 남은 1년 열심히 하자! 마지막으로 동생들! 내가 아는 동생들은 몇 안 되겠지만... ㅎ 항상 언니, 오빠들 눈치보느라 힘들었으려나? ㅋㅋㅋ 여튼 1년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잘해보자! 우리 영미 패밀리 관영미 누나, 수진이 누나, 서영미 누나, 정민이 누나, 하늘이 누나, 가은이 누나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현, 소연, 승희, 채원, 예



은, 정빈, 종훈이! 모두들 더 힘내서 우리도 누나들 언니들 따라 좋은 결과 내자! 진주 영미패밀리 모두들 고맙고 파이팅!!!

-From 민준

T. 중앙 와꾸통 한운지

운지야 안녕. ㅎㅎㅎ 이걸 보면 너는 놀라서 기절하겠지 ㅋㅋㅋ 옛날에는 편지 쓰는 거 좋아해서 몇 번 썼던 거 같은데, 요새는 카톡도 2줄 이상으로 안 넘어가는 거 같아... ㅎㅎㅎ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 많이 힘들지. 어제 잠시 들었는데 전과도 생각중인 거 보면 순탄치만은 않은 거 같네. 친구들 문제로 속 썩는 일은 없니? 있으면 내가 다 때려 부숴줄게. 우리 되게 안 맞는 거 같으면서도 잘 맞고 서로 밖에 없는 거 알지 ~ 나는 너한테 내가 유일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너가 유일해 ㅎㅎㅎ 내 모든 걸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운지야 ㅠ ㅠ 내 눈치 안 보고 나한테도 다 얘기해도 괜찮아... 나는 너라면 다 이해할 수 있겠어 ㅎㅎㅎ 우리 커서 일본 여행이나 가서 온천에 쏙 담그자 운지야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아 충분한 사람인 거 알지. 스스로 자존감 낮추지 말고 함부로 대하는 듯한 취급 받을 때 그제 잘못 났다고 꼭 얘기해야 해. 나는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 근데 그 사람들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 제일 힘들더라. 그냥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결이든 결이 아니든! 조금 마무리 짓는 거 같긴 한데 앞으로 잘 부탁하고 사랑해



-From 기요미

T. 따라해 논쟁아~~

흠흠~ 내가 두번쨰가? 이거 읽으면 이제 안 쓴 사람 딱 한명 남네? 이거보고 참고 하그라~ 우리 이과친구들을 위해 문과형님 이 갠성을 살려서 이렇게 써본다. ㅎㅎ 오글거려도 참고 끝까지 읽 어주길 바라 ㅋㅋㅋ

래도 의견도 많이 안 맞아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엔 다시 붙게 되었더라 ㅋㅋ 지금은 거의 뛰 없으면 허전할 정도? 너네 둘이 사귀는 거 나 많이 안 만나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많이 불러 주라. ㅠ 부르면 언제든 갈테니깐. ㅎㅎ 앞으로 꼭 평친하자.^^

사진은 고때인가?? 우리 엄청 포퓰했을 때야~ 그때 말고 찍은 사진이 없다. ㅠ ㅠ 제발 같이 찍자! 따라해 논쟁아~~

-From. 하진고



T. 안녕 채영~

웃 잘 읽는 채영이 안녕~ ㅎㅎ 우리 가 벌써 알고 지냈지가 4년이나 됐네. ㅋㅋ 얼마 전에 본 거 같고 얼마 전에 졸업 한 거 같은데... 벌써 고3이 코앞이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ㅋㅋㅋ 그니까 고3 되기 전에 3-6 다시 모여야지! 반장이랑 성준

이랑 태영이랑 날 잡아서 놀자 ㅋㅋ 우리 우정 편지 말고 커서도 놀고~ 일본 가기 전까지 공부나 열심히 하고 알겠나 ㅋㅋ 마지막으로 3-6 파이팅!

-From. 째꼬



T. 닭똥집

고등학교 들어와서 만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네 멀리서 와서 적응하느라 고생 많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같이 잘 지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자!! 생일 축하해

-From. 박한샘.



T. 고추 원추 북극곰한테 전하는 글

수문재에 있으면서 두지게 힘들었지? ㅇㅇ 진짜 힘들었제아~

나 수문재 들어가고부터 본격적으로 잘 쫓겨 다니면서 잘 놀고 열심히 다들 공부한 거 같네! 쫓겨 뺏겼듯... 수문재 들어갈 때는 야영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야영보다는 때 일때일 진실게임 하는 거 같아서 더 좋아!!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공감해주셔서 진짜 도움 이뻐이 된 고마운 친구들 그냥 이대로 졸업할 때까지 보내면 좋겠다. 요즘은 다 같이 노는 기분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워지만 그래도 좋다잉 ㅎㅎ

일단 더 이상 하면 어색하고 계속 쓰면 니네가 흑역사라고 놀릴 거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 우리 원하는 꿈 진로 다 이루고 재밌게 살자~!!!!!! (사진은 넌지 팔래서 안 넣음 까봐) 그리고 정익이, 정우, 주경이, 진이 서운하고 있었을 거 같다. ㅋㅋㅋ 다 고마운 친구고 니네는 항상 내



가 고맙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었아. ㅎㅎ 이거 보면 우리반으로 모여라 맛있는거 사준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짧고 굵게!! 쌍 비읍.

-From. -홍-

T. 원진이에게

음정, 박자 하나도 못 맞추면서 매년 노래방 가자고 노래를 부르는 원진아!

난 3년째 실버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 발악하는 요즘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습이 아파...

근데 어쨌든. 그게 니 실력인걸. 앞으로도 해맑게 바보 같은 모습 변치 않길 바랄게!

-From. 너의 친구 찬희가



T. 우리들한테 ㅎㅎㅎ

하잉~ 우리 고등학교 생활 몇달 안 남았는데... 이런 추억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ㅎㅎㅎ 감동이지? 알겠지? 미안 ㅋㅋ 내가 필통에 쓰는 건 처음이라서 뭐라 써야할지 몰랐는데 ㅋㅋㅋ 아무말 대잔치여도 이해해줘 ㅋㅋㅋ

니네랑 고때 친해져서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서 너무너무 좋다. ㅎㅎ 나 힘들 때마다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니네 다 너무너무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서 너무너무 고맙다 ㅠ ㅠ. 감지원은 교대가고 박가슴은 심리학과 박가은은 오재빈은 미술, 임경은 방사선학과 주가은은 지리교육과 나는 화학과 가서 대학교 가서도 계속 계속 만나자!! 감지원! 내가 한 동안 니한테 쫓 따갑게 대했는데 오히려 니가 먼저 사과해주고 고맙다. ㅠ ㅠ 감지원은 너무너무 착해 ㅠ ㅠ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해줄게! 박가슴은 주가은! 수능 끝나고 우리집 와서 영화도 많이 보고 콘서트도 같이 다니고 놀자. ㅠ ㅠ 어 둘이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 본 다음에 나한테 인증샷 보내줘! ㅋㅋㅋ 오재빈! 박가은! 니네 둘 다 살기 준비하느라 바빠텐데 고생한다 ㅠ ㅠ 열심히 해라! 파이팅!! 임경은! 니랑 중2때 알았는데 벌써 3이네! ㅋㅋㅋ 시간 빠르다! ㅋㅋㅋ 니 덕에 고등학교 와서 좋은 친구



들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고맙다!!!! 사진에 나랑 임경은 없어 ㅠ 다음에 꼭 같이 찍자!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파이팅!! 안녕~

-From. 세상에서 제일...

청/소/년/환/경/동/아/리

푸·른·마·당 모집



모집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중2~고2학생 (진주 거주)

정기모임 참여가 가능하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학생

동: 매월 둘째주 토요일 2시, 다양한 주제활동
(지리산/남강탐사, 정화활동, 미세먼지관련 활동 등)

모집인원 : 15명 내외

모집기간 : 2018년 9월 5일(수)까지

신청방법 : jinju.kfem.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작성, jinju@kfem.or.kr 제출

이후일정 : 9월 6일(목) 합격자 개별문자 발송

9월 8일(토) 2시, 환경연합 사무실(상대흥한상가2층) 신입생OT 및 정기모임

이 점: 1365 활동실적 등록, 꾸준한 활동을 통한 스토리텔링 제작, 입시 및 취업시 활용

※푸르마당은 진주환경운동연합 보설기구 청소년 환경동아리입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jinju.kfem.or.kr 혹은 페이스북 푸른마당에서 확인/월 활동비 3천원이 있습니다.



진주시 대신로 243번길 12, 2층 202호 (상대동 흥한티운상가 2층)
TEL. 055) 747-3800, FAX. 055) 747-5882

디자인의 모든 것!
노는아이! minijebi

디자인 컨셉에서부터 견적까지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포스터 / 전단 / 명함 / 스티커 / 리플렛 / 팜플렛 / 봉투 / 현수막 / 배너 / 쿠폰 / 메뉴판 / 간판 / 카페 / 블로그 / 홈페이지 디자인 / 로고제작(CI·BI) / 파워포인트제작

[illegible][illegible]

필동지정 배부처 | <천전동>글라스박스/채산정/제일좋은악곡/소초책방/신철하어/초목마을/커피모토/공제상/칠암주민센터/독원어린이집/진주남교회/크니크니/석운호수학/동훈사점/신성로사점/소문난사점/신한샘사점/커피파는<신안.평거.이현동>비람이불어오는곳/블러쉬우/황금알감사장/한빛악곡/장민호스/신세계수영장/민리장성/서해방/와비/미미도/화가의정원/우팔말/큰바위사점/진주문고/새아침학원/진주평화교회/아이클럽진주생활/안정현플라워/삼보사점/레/대사사점/여중문고/성지원(신미지역)제일안경원/동신교회/대일/초창/대오김발/승강사점/진주교회/포스타/포스타/문학창작점/예원/대양서점/메이/필릿제점/소/한양꽃집/YMCA/알토스/영도초/하성사/교회사/다스커버리/노스페이스/연남타운/글래키스/필리아웃도어/오프로드/노크레이프/성지/이코인/두루리/술/대동교회/본관/경원/가림빌/씨비/저속모고/부내내대점/워터스/저속시미/미다아트/메이저지점/제이/WCA/사토스마루/장동서/서하이비/노/노/노/세프/꽃/진주첫방/노그랑/연남타운/교문사점/영남포구/하이프렌즈/노크레이프/드림오피스/스쿨.복음/꽃/대동교회/현성서점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 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8년 9월 12일(수)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천을 통해 32분을 추천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30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변동가능) 당첨되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칸에 있는 숫자따줄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따줄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참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독으로 보내주시면 엄청난 화를 무지 높이는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 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illegible]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등 - 문상 1만원권(2명) : 김람서(제일여고2-6)/ 장우현(대야고2-10)
2등 - 문상 5천원권(2명) : 김승훈(진주중고2-6)/ 배윤호(동명중고2-3) 강기애(신서고3-1) 임상훈(중일고2-4)/ 서영서(중앙고1-2)/
신수진(신창고1-7)/ 정영은(중앙고1-10)/ 이기영(신영여고1-4)/ 강세인(경명고2-10)/ 서현민(경해여고1-1)/ 조인규(진주고
2-6)/ 이해창(진주고2-10)/ 김하준(동명고1-6)/ 이준희(진양고2-1)/ 김동호(진양고2-1)/ 유경민(사대부고2-3)/ 김은수(사대부고
2-1)/ 박지우(명신고1-9)/ 박현준(명신고3-5)/ 박민준(이명고3-2)/ 김윤지(진주여고2-3)/ 이은진(제일여고3-8)/ 이소미(제일여
고1-9)/ 임영선(대야고1-7)/이영재(대야고3-3)

청소년 여러분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학생이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독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한살림 경남은
필통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후원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동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